

2008년 국립국어원 학술회의

국외 한국어 교육,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문화 다원성 시대의 언어 소통 기획 -

일시 : 2008년 4월 25일(금) 13:30 - 18:20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후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국립국어원

일 정

13:30 - 14:00	등록
1부 문화 다원성 시대의 언어 소통 기획 사회 : 이상재(국립국어원)	
14:00 - 14:10	개회사 : 이상규(국립국어원장)
14:10 - 14:20	격려사 : 유인춘(문화체육관광부장관)
14:20 - 14:30	축 사 : 유진환(해외문화홍보원장)
14:30 - 14:40	축 사 : 배재현(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14:40 - 14:50	기조 강연 : 정순훈(배재대학교 총장,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14:50 - 15:00	중간 휴식
2부 문화 다원성 시대의 한국어 교육 사회 : 이상재(국립국어원)	
15:00 - 15:30	주제1 - 아시아권의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분석 연구 발표 : 손중권(경북대학교) / 토론 : 유재기(한중문화포럼 회장)
15:30 - 16:00	주제2 - 세종학당 설립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발표 : 김재훈(대구대학교) / 토론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16:00 - 16:20	중간 휴식
3부 세종학당과 한국어 교육 사회 : 정호성(국립국어원)	
16:20 - 16:50	주제3 -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발표 : 송향근(부산외국어대학교) 토론 : 박희영(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16:50 - 17:20	주제4 -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방안 발표 : 허용(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 이재기(한국교육과정평가원)
17:20 - 17:30	중간 휴식
4부 종합 토론 좌장 : 조항록(상명대학교)	
17:30 - 18:20	김정숙(고려대학교), 유희림(YTN부국장), 장원창(국제교육진흥원), 최용기(국립국어원), 최주열(선문대학교), 최현선(국제교류재단)

차 례

[개회사] 〈세종학당〉 다중의 시대, 언어 소통 기획

[축사]

[축사]

[기조 강연]

- 1 아시아권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분석 연구 ————— 21
- 2 세종학당 설립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 39
- 3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 73
- 4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방안 ————— 103
- 5 종합 토론 ————— 129

1부

문화 다원성 시대의 언어 소통 기획

사회 : 이승재 (국립국어원)

개회사 : 이 상 규 (국립국어원장)

격려사 :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축 사 : 유 진 환 (해외문화홍보원장)

축 사 : 배 재 현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기조 강연 : 정 순 훈 (배재대학교 총장,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세종학당>

다중의 시대, 언어 소통 기획

■ 1억 3천만, 한국어 학습 수요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마련 시급

15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산업 생산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서방 유럽의 몇몇 제국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여러 나라나 부족을 식민지화함으로써 피식민지의 언어 침탈이 시작되었다. 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미소를 중심으로 군사 무력 경쟁이 강화되는 냉전의 시대를 거쳐 다시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가적 경쟁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21세기 미래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 소통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구촌화와 언어의 단일화, 여성성의 강화 등,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지난 세기의 산업 노동은 이제 그 주도권을 상실하고 그 대신 ‘비물질적 생산’ 즉 지식, 정보, 소통, 관계 또는 극단적으로는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까지를 재화로 고려하는 비물질적 생산력이 세계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물질적 생산성 경쟁 시대에서 비물질적 생산성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화의 가치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있는 나라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오디오, 비디오, 영상물 등 거의 모든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반인 문자 텍스트, 아이디어, 상징, 코드, 언어적 형상, 이미지 등과 같은 비물질적 생산을 위한 노동을 ‘정동적 노동’(안토니오 네그리, 144)이라고 한다. 이것은 편안한 느낌, 참살이(웰빙), 만족, 흥분, 열정, 창조성이 매우 존중되는 영혼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이 높은 비물질적 생산물을 창출하려면 정확한 언어적 소통과 정보의 생

산과 소통의 언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초국가적 기업들이 노동제 생산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큰 비물질적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 자국 언어로 세계 시장을 소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비물질적 생산의 기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와 정보로 이루어진다. 문자(디자인)와 오디오, 비디오, 영상 등 각종 문화 산업의 콘텐츠의 바탕이 언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도적 언어가 비물질적 생산성 향상이나 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 새로운 무한 경쟁시대의 언어 정책은 지난 세기 식민 언어 정책보다 내면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변국인 중국은 이미 <공자학당>을 설립하여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자국어 자동 기계 번역, 통역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일본어 국외 교육 부문을 국가적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언어 보급의 방식에는 일방적인 언어 지배의 방식과 언어 공존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지배적인 언어가 피지배적 언어를 포식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여 함께 공존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제국주의적 언어 보급 기획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새로운 다중(多衆) 시대에 문화 다원성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교육 철학에 바탕을 둔 방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한 <세종학당>은 바로 후자의 방식으로 다중 언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21세기 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도한 자국어 보급을 위한 경쟁을 조정하는 동시에 국가 간의 평등 원리에 의한 소통 체계를 확대시키는 모형이 바로 <세종학당>이다. 언어 전쟁으로 비유되는 이 시대의 다국 언어 정책의 철학적 기초인 문화상호주의에 기반을 둔 자국어 보급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종학당>이 설립된 것이다.

비물질적 생산성 강화와 유통을 위한 언어 정책적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효율적인 정보 소통을 위해서 웹기반 다국어 지원 정보화 기술 개발 알앤디(R&D)에 투자한다면 서로 다른 언어일지라도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동시에 인류의 지적 유산인 그들의 언어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마을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다국어 지원 언어 코퍼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언어끼리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지원한다면 특정 언어의 제국주의화를 방

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충돌에 의한 국가 간의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 시대인 다문화 시대에 들어섰다. 그리고 국제 결혼이주민가족만 하더라도 20만 세대이니 부양가족을 합치면 거의 8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잠재적 수요자까지 합치면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이들이 약 5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어 사용자 약 8천만에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자 5천만을 합치면 한국도 언어 대국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정책이 단순히 내국인을 위한 정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1억 3천만이라는 거대한 한국어 수요자를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국인용으로 만든 표준국어대사전을 확대하여 다양한 언어 학습자를 고려한 웹기반 다국어 지원 사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또한 언어와 언어 간의 소통을 위한 학습 체계, 다국 언어 기계 번역, 통역 등을 지원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한국어 학습 체계 구축과 교원 관리, 표준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어 교육의 대안 <세종학당>

20세기 서구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고 피지배 생산 노동자 계급으로 민중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다. 지배와 피지배의 대립 구도 속에서 다수 피지배층을 상징하는 계급적 개념으로 사용된 이 용어는 다시 대중이라는 말로 바뀌게 된다. 곧 정치 제도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발전된 생산재와 더불어 비물질적 노동의 발달로 생성된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대중이라는 개념 역시 서로 다른 다양한 피지배층을 하나로 묶어 지칭한 개념이다. 이제 민중(民衆)의 시대에서 대중(大衆)의 시대를 거쳐 다중(多衆)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다중이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무리로 새로운 전 지구적 틀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위한 전통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중의 민주주의는 저항, 자율, 노동자 해방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이라는 의미를 함의한다. 곧 사회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낡은 모델과 결별하고 상호 존중하고 동질적

가치를 공유하는 무리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로 다중의 국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지난 세기까지는 서로 다른 언어가 소통을 위해서 지배적 언어가 피지배 언어를 포식하는 방식이 전개되었다. 서방의 소수 언어가 지구 남반부 대부분 국가와 부족의 언어를 포식하였다. 아프리카, 남태평양의 많은 군도,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아메리카를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 나라의 언어는 소멸하였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부산 지역의 출산율이 가장 낮아서 200년 후 한국인이 이 지구에서 소멸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도 있으며, 2050년이면 한국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이도 있다. 우리의 모국어가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 전역의 한국어 학습 열기 고조에 부응하여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방향의 언어와 문화 교류 협력을 확대할 시점이다. <세종학당>은 지난 시대의 언어 제국주의적 침략의 방식이 아닌 쌍방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습 교과서를 구성하여 국가 간 새로운 교류의 디딤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 한국어 학습 수요층의 다변화에 부응하여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어 문화권역 및 한국의 문화 산업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세종학당>의 설립 형태는 재외 한국문화원·한국관광공사 등을 거점으로 한 개방형 한국어문화학교로, 저비용 고효율의 방식을 추구한다. 세종학당은 소수 지식인 중심이 아닌 현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원 형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진 기지가 될 것이다. 정부 부처 간에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 비교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기획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21세기 이중언어교육의 모범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을 교육 대상으로 삼는 <한국교육원>이나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재외동포를 교육 대상으로 지원(외교부)하고 있는 <한글학교>와는 교육 대상자가 전혀 다른, 현지의 일반 대중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문화부)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세종학당>이다. 이 <세종학당>은 지배적 방식이 아닌 상대 국가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동시에 상대 국가의 언어 문화를 학습을 통하여 공유하는 21세기 미래 다중 언어 교육 기획의 소산물이다.

<세종학당>은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으로 이웃나라와 함께 문화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가는 등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비, 강사비, 운영비 등 지원, 성적 우수자 초청 연수, 세종학당 교원 양성 및 교원 연수 지원, 한국 문화와 현지 문화가 융합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세종학당 활용 교원 양성 지원, U-세종학당 구축을 통한 한국어 교육 통합 정보망 지원 등 최소한의 운영 지원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얻는 실용적인 한국어 국외 보급 학교가 될 것이다.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 비용에 투자하지 않고 실질 학습 비용만 투자하는 <세종학당>은 젊은이들의 국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획이다.

앞으로 정부 부처 여기저기에 분산된 한국어 국외 보급 현안을 기능별로 특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의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국외 학습 수요자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토대로, 교원 수급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 교육과정 마련 및 효율적인 교재 개발을 위해 관련 학회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그동안 연구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이 보다 실용적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세종학당’을 같은 철학 기초를 바탕으로 한 동일한 이름(세종학당)으로 개편하여 운영함으로써 한국어, 한국문화 세계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8년 4월 25일

국립국어원

원장 이상규



유진환
(해외문화홍보원장)

우리 문화의 상징이자 보배인 한국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방안을 찾고, 해외에서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진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 다원성 시대의 언어 소통 기획 학술회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주최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처럼 뜻 깊은 학술회의의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해주실 여러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학 연구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언어학 대학이 1990년대 중반에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인 영어, 독어, 불어 등 30개어에 대해 순위를 매겼는데, 1위를 차지한 문자가 바로 “한국어”이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1989년 ‘세종대왕상’을 만들어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공헌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가 세계 모든 문자 중 쓰기 편하고 배우기 쉬운 훌륭한 문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과 영어 세계화의 확산으로 약소국가의 수많은 언어가 사멸해 가는 “언어 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한국어의 독창성 및 우수성, 한류지속확산 등으로 인해 한국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확대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한국어 세계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세계인들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한국어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살리면서도 다른 나라 언어들과 조화롭게 통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언어 소통의 한마당으로서 「세종학당」 사업은 한국어 세계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세종학당」 사업은 지식인 중심의 한국어교육을 극복한 대중적 한국어 보급 사업으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한국어 학습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한국문화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선진 문화 일류 국가 건설의 초석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현재 해외문화홍보원에는 22개국 27개처에 32명의 재외 홍보관들과 9개국 12개처에 15명의 재외문화관들이 현지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강좌, 한국 문화홍보 등을 통해 한국어 해외보급과 더불어 코리아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홍보관과 문화관의 통합으로 전략적 거점지역에 재외문화원을 확충해 한국어 수출 전초기지로 활용, 재외문화원과 세종학당이 상호 윈윈(Win-Win)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의 해외보급 및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진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제교류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교육진흥원, 한국어세계화재단, 국립국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글학회,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9개 기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한국어를 세계 일류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사의 큰 성공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 재 현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존경하는 이상규 국립국어원장님, 유진환 해외문화홍보원장님, 그리고 학계 및 문화계 인사 여러분,

해외 한국어 보급과 관련한 제1회 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외교통상부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외교는 우리의 문화요소 중 국가정체성을 가장 잘 발현하는 요소들을 활용하여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총체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모범적 시장경제·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세계 11대 무역국이자 IT 초강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현실 하에서 우리 문화외교의 당면과제는 한국의 능력과 분수와 동떨어진 가공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첨단’, ‘품격과 활력’이 충만한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제대로’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한 나라의 국가정체성을 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문화를 전하는 최선의 수단이 됩니다. 언어와 문화가 그 기능을 상호 보완하는 사례를 우리는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한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류의 확산은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가를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은 700여만명 우리 재외동포와 함께 주요 한국어 교육수요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표출되는 한국어 수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넓고 다양한 시각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현실을 재조명하여 앞으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국어 수요에 대한 수동적 대응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한국어에 대한 능동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해외 한국어 보급 전략 수립은 선진 문화강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한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과 관련한 새로운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번 학술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향후 우리정부의 해외 한국어 보급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의 한국어 교육,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금번 학술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다원성 시대의 언어 정책의 방향

정 순 훈

(배재대 총장,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1. 국내외 현황

국내의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도래했다. 국제결혼 이주민은 13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 성장하여 이미 1만5천여 명이 취학연령이 되었다.

2005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이 올해(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간 10만 명 이상이며 한국에 오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들의 수는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주요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한류 열풍이 불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는 과거 성인층뿐만 아니라 청소년층과 노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대학 입학시험에 한국어 과목이 채택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청소년이 날로 늘고 있다. 심지어 한국어가 대학 입학시험과 관계가 없는 대만,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이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개설되어 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으로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중국, 일본 등과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와 요르단과 같은 아라비아 반도로,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한류와 한국어 열풍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제 한국어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미국,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1990년대 이제까지 치중하던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으로 시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국민 위주의 국어교육을, 한국어를 제2언어로 접하는 결혼 이주민과 그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힘을 써야 할 단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에 발맞추어 다양한 학습자에 따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이 교재를 통해 학습자들을 가르칠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학습자와 교사들에게 필요한 학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변화 추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2. 정책 방향

한국어 열풍이 이미 불고 있는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에서는 공교육 차원에서 한국어 내지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학과가 대학 내에 개설되었고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는 이들 학과 개설이나 개설된 학과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많은 예비 학습자들을 공교육 차원에서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대학이란 공교육제도 차원으로만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원이라는 사

교육 차원에서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적지 않은 학습비와 보장 받지 못한 교육질이 오히려 한국어 교육을 열망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 교육 기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악한 환경의 예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세종학당’ 설립은 오랜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손님이다. ‘세종학당’의 설립으로 예비 한국어 학습자들은 저렴한 교육비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학당’은 몽골, 중국,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미국 등 5개국 18개 지역에 개원하였거나 개원될 예정이나 앞으로 국가적으로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등 미수혜 지역이나 한국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개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예비 한국어 학습자가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

2.2. 교재 및 교육과정

국외 정규 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프로그램은 주로 국내의 대학 부설 어학원의 교재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교재의 국외 사용은 학습자의 여건이나 수준과 문화 차이 등 현장과의 괴리로 현실성이 떨어져서 교육 상의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국립국어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한 ‘한국어 교재 현지화 사업’의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에서 출판하여 ‘세종학당’의 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태국, 몽골, 중국, 필리핀, 베트남에서 앞으로 개원할 국가의 언어로 교재를 현지화하는 사업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 한국어 교원 양성 및 보급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어 교원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한국어 교육계의 숙원(宿願) 사업이었다. 현재까지 1,500여 명이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2007년에 치른 제2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의 최종 합격자 수와 2008년 2월에 국내 대학에서 배출한 한국어 교육 전공의 석사와 학사의 수를 감안하면 한국어 교원의 수는 곧 2,000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절하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들의 국외 파견에 ‘세종학당’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국외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교육할 한국어 교원은 국내의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시행하였던 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을 국외에서 현지 사정에 맞게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기타

몰입식 영어교육이 국내의 주요한 화두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 국어의 보전은 물론 한국어의 보급에 관한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등 정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차원 즉 기업이나 국민 차원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언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에서 ‘문화 다원성 시대의 언어 소통 기획’ 학술회의 주최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부

문화 다원성 시대의 한국어 교육

사회 : 이승재 (국립국어원)

주제1 - 아시아권의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분석 연구

주제2 - 세종학당 설립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주제 1

아시아권의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분석 연구

발표: 손 중 권
(경북대학교)

토론: 유 재 기
(한중문화포럼 회장)

아시아권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분석 연구

손 중 권 | 경북대학교 |

1. 한국과 아시아권 국가 간 교류 현황

1.1. 주요 국가별 체류 외국인 현황

2006년 말 현재 국내 주요 국가별 외국인 체류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2006년 12월 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체류 인원	주요 국가별 체류 인원			
체류 외국인 (합법 + 불법)		910,149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382,237 (42.0%)	108,091 (11.9%)	43,207 (4.8%)	54,698 (6.0)
합법 체류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체류 인원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229,982	200,822 (87.3%)	20,221 (8.8%)	4,335 (1.9%)	1,744 (0.8%)
외국인 근로자 (236,262명)	전문 인력	24,038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6,604 (27.5%)	5,163 (21.5%)	1,602 (6.7%)	1,226 (5.1%)
	예·체능 인력	3,183	필리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1,866 (58.6%)	281 (8.8%)	223 (7.0%)	106 (3.3%)
	단순기능인력	209,041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80,629 (38.6%)	24,992 (12.0%)	23,394 (11.2%)	17,866 (8.6%)

합법 체류 외국인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전)	87,252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51,982 (59.6%)	14,892 (17.1%)	6,273 (7.2%)	4,041 (4.6%)
난민 인정자	50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카메룬
		18 (36.0%)	13 (26.0%)	4 (8.0%)	3 (6.0%)
외국인 유학생	28,062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19,812 (70.6%)	1,694 (6.0%)	946 (3.4%)	919 (3.3%)
합법 체류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	6,550	일본	중국	파키스탄	미국
		1,854 (28.3%)	831 (12.7%)	569 (8.7%)	476 (7.3%)
불법 체류 외국인					
불법 체류 외국인	211,988	중국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93,913 (44.3%)	14,168 (6.7%)	12,524 (5.9%)	12,015 (5.7%)

※ 외국인의 자녀 (20세 이하)

① 외국 국적 소지자 가운데 합법 체류 53,465명, 불법 체류 8,704명이다.

② 국민(혼혈인)의 경우 정부 공식 통계는 없으나, 약 35,000명 추정(2003년 필벌재단)된다.

1.2. 국가별 연도별 한국어 능력 시험(KLPT)

국가명	구분	2005	2006	2007	합계
베트남	응시자 수	시행 안 함	17,378	16,321	33,699
	합격자 수		11,610	16,006	27,616
	합격률(%)		66.81	98.07	81.95
몽골	응시자 수	2,986	9,482	14,606	27,074
	합격자 수	1,949	3,164	13,297	18,410
	합격률(%)	65.27	33.37	91.04	68.00
인도네시아	응시자 수	5,228	시행 안 함	45,134	50,362
	합격자 수	2,984		25,698	28,682
	합격률(%)	57.08		56.94	56.95

국가명	구분	2005	2006	2007	합계
필리핀	응시자 수	3,210	13,468	8,314	24,992
	합격자 수	2,313	7,411	6,836	16,560
	합격률(%)	72.06	55.03	82.22	66.26
태국	응시자 수	23,438	21,850	10,663	55,951
	합격자 수	14,379	9,970	8,712	33,061
	합격률(%)	61.35	45.63	81.70	59.09
스리랑카	응시자 수	705	6,089	10,178	16,972
	합격자 수	546	3,744	2,889	7,179
	합격률(%)	77.45	61.49	28.38	42.30
캄보디아	응시자 수	시행 안 함		4,658	4,658
	합격자 수			3,685	3,685
	합격률(%)			79.11	79.11
우즈베키스탄	응시자 수	시행 안 함		9,844	9,844
	합격자 수			5,028	5,028
	합격률(%)			51.08	51.08
키르기즈	응시자 수	시행 안 함		801	801
	합격자 수			777	777
	합격률(%)			97.00	97.00
인도	사증 발급자 수	880	1,022		
네팔	- 2008년부터 시행 예정 - 예상 응시자 수 약 10만 명 중 약 5000명 정도 합격 예정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연도는 차기 연도의 응시 인원보다 평균적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중국 무한시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2,000명 정도이며, 현재 한국어 관련 강의 수강생도 2,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인도네시아 현지 방문 조사 분석

3.1.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인도네시아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다. 한국학(어)과를 운영하고 있는 몇몇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먼저 University of Indonesia는 2006년 9월 인문대에 4년제 학위 과정으로 Korean Studies Program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이 신설되었다. 이 학과에서는 총 1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한국의 역사, 문화, 한국 문학, 한국어 등 약 42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현재 1학년 28명, 2학년 41명으로 총 69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지인 약 5명과 한국인 3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이들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University of Gadjahmada에서는 한국어 과정을 2003년부터 3년제 단기 연수 과정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7년 9월 4년제 학위 과정으로 한국학을 개설하였으며, 공식 명칭은 Korean Language Program이다. 4년제 과정으로 한국어 입문, 한국어(회화, 문법, 작문, 번역 등), 실용 한국어, 한국 문학 입문, 한국 문학, 한국의 역사, 한국의 사회, 한국의 정치 및 경제 등 약 47개 과목의 156학점을 이루어져 있다. 강사진은 현지인 8명과 한국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45명의 학생이 학위 과정에 있으며 단기 연수 과정(diploma)을 거친 사람은 약 71명이다.

마지막으로 University of National은 한국어를 2005년부터 3년제 단기 연수 과정으로 개설하였으며, 학과명은 Korean Language Program이고 개설되는 과목은 약 24개이며, 현지인 4명과 한국인 4명의 강사진이 이들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총 66명이다.

아직 학위 과정으로 한국학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학 센터 등 어학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강의하고 있거나, 향후 한국어 과정 개설에 관심이 있는 대학으로는 University of Lambung Mangkurat, University of Islam Indonesia, University of Hassanuddin, University of Diponegoro 등이 있다.

3.2. 수요 분석

한국어 교육의 수요를 크게 보면 고용허가제에 따른 노동자들의 KLPT 시험을 위한 수요, 현지 한국 진출 기업이나 관광가이드 등 현지에서의 취업을 위한 수요, 대학에서의 정규과정으로의 한국어과나 한국학 관련학과와 관련이 있는 부분,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 등 한류에 따른 자발적 교육 수요 등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류에 의한 집단은 자카르타나 족자카르타 지역 등에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비록 한국 드라마가 TV를 통해 방송이 되기는 해도 문화적 차이가 큰 형편에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 즉 몽골이나 베트남 등과 비교해서는 많이 잠잠한 편이었다. 단지 몇몇 유명 연예인들의 팬클럽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었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진행 상황을 보면 University Indonesia에서의 한국어 전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2006년에는 320명이 지원해서 46명을 선발하였고 2007년에는 1,047명이 지원하여 31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현재 등록인원은 43명이 등록 중이며 36명이 2학년으로 진급하였으며 1학년은 28명이 등록하여 유급 2명을 제외한 26명이 재학 중이었다. 졸업 후 이들은 KLPT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관심이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비해 교수진의 수준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비록 KOICA에서 3명의 교수를 파견하고 있지만 학과장조차 중국어 전공자였으며 2명의 현지인이 교수인데 학생 수에 비해 교수진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 교육수준의 한계가 분명히 보였다. 이와 달리 University National(UNAS)는 3년제로 학생이 총 50명이 있으며 교수는 현지인 2명에 KOICA 지원 3명 현지 거주 한국인 자원봉사자 2명의 교수가 있었다. 이들 학생들은 대부분 KLPT에 관심이 있었으며 대부분 다 시험을 통과했다고 한다. 학과장은 비교적 한국어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200명이 지원하여 3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학생들의 대부분 일차 목표는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다음은 한국관광객의 가이드이며 마지막으로

선생이나 학원 강사였다. 이렇게 보면 대학에서의 수요는 한정된 정원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목적은 현지 한국 기업 취업이나 관광가이드였다. 따라서 이 부분의 수요는 이미 대학이 감당하고 있어 세종학당 프로젝트와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였다. 단 세종학당을 통해 현지 거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후 이들에게 한국어 강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있으면 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장 큰 수요는 역시 고용허가제에 따른 KLPT에 대한 수요였다. 자카르타 경우에는 현재 한국어를 개설하는 인가된 사설기관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다. 그나마 자카르타의 최대 사설기관에서조차도 한국어를 개설은 하고 있지만 수강생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개강은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자카르타의 한 비인가 사설학원을 들렀는데 그 곳에서는 한국어 강좌에 작년 한 해 약 100명 정도가 수강했다고 했다. 일본어의 경우 140명 정도라고 했다. 이 비인가 사설학원의 강사는 UNAS 출신이라고 했다. 자카르타의 경우 비인가 사설학원은 더러 있었는데 주로 UNAS 대학생 가운데 3학년이나 졸업생들이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는 전무한 형편이었다. 하지만 UNAS의 학과장과의 면담과 설문지 조사를 부탁했을 때 3학년 대부분이 학원 강사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들이 받는 수입은 다른 강좌에 비해 두 배정도 높이 받고 있었다. UNAS 학생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이들이 담당하는 숫자는 4,000명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쨌든 자카르타에서는 KLPT에 대한 약간의 수요와 한국기업에 이미 취업한 현지 사람들의 교육 수요가 조금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지역은 족자카르타(Yogjakarta)와 수라바야지역(아래 지도 표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사설학원에서도 한국어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현재 이곳의 사설학원에서는 한 클래스당 15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으며 연 3회 정도 개설되고 있다. 이 지역의 사설 학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산업연수생 등으로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사설학원의 강사들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을 다녀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인

도네시아에서는 사설학원에 대한 법령의 설치 미비와 통계의 부실, 노동청 송출국 담당자의 비협조로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상당한 수요가 수도 자카르타가 아닌 족자카르타나 수라바야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그 곳을 방문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만족할만한 기초 데이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UNAS 학생들 숫자와 그들이 사설학원을 통해 강의하는 현황 등과 KLPT 응시자의 2007년 자료를 기초로 2008년 약 35,000명 정도가 KLPT 시험 응시를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로 UNAS 한국어과 학과장인 Rura ni Adinda 교수의 의견으로는 10,000여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포함한 숫자이다. 또 전체적으로는 당분간 고용허가제에 따른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해 최대 취업가능 인원이 2007년 기준 9,000명이지만 실제로 4,000여명이 취업하였기에 비싼 응시료에 비해 2007년 KLPT에 합격한 26,000여명 가운데서도 1/6도 채 취업이 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서의 고용에 따른 수요는 거의 미미한 형편이었다. 자카르타에 있는 HANA Academy를 방문했을 때 그 학원에서의 교육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적은 숫자였다. 이는 현지 공장에서 스테프들만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면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와 수라바야 지역

전체적으로는 한국어 수요가 40,000여명 수준이며 이 수준은 당분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예의 주시해야 할 점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거의 비인가 사설학원에서 수준이하의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이 자칫 장삿속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어 보였다. 현지 강사나 담당교수 등을 만나 본 결과 그들의 말하기 듣기 쓰기 수준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더불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자격을 위한 교육을 세종학당이 담당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을 한 차원을 끌어 올릴 수 있고 수요도 재창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국가	지역	산출근거	한국어 수요 예측 인원	비고
인 도 네 시 아	자카르타	Hana Academy KLPT 수강인원 한국기업의 현지 스태프	200 20	
		66클래스(대학생 3,4학년인 66명 학생 1 클래스) ×15명(한 클래스 당) ×4회(1년간) 400명(한 팬클럽 당)* 3	3,960 1,200	
	족자카르타 수라바야	KLPT : 25,000	35,000	
	계		40,380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수요 예측 인원

4. 베트남 현지 방문 조사 및 설문 조사 분석

4.1. 개요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피차간에 익숙한 곳이 되었다. 1992년 10월 22일 정식으로 수교가 되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어왔다. 특히 2007년도 수출 총액이 57억6천만 달러에 달하고 수입 역시 13억 9천만 달러에 이를 만큼 양국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인적교류를 보면 약 1천여 개에 달하는 기업이 진출하여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을 하고 있으며 현지 거주하는 한인은 약 5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숫자는 5만명이 넘고 있는 형편에 있다. 특히 2004년 7월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베트남은 1만5천400여명의 근로자를 송출하여 한국 인력 송출국 중 최다국이다. 하노이에만 해도 비공식적으로 약 8천여 명의 교포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와 마찬가지로 한류바람이 강한 곳이기도 하다.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면 TV가 있는 집에 한 마을 사람 전체가 모여 시청하기도 할 정도로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한류바람에 한국 기업의 활발한 현지 진출과 한국으로의 송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어 교육 수요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대학 졸업생들의 90%이상이 미취업인 상태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경우 급여 수준이 3-4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관광가이드로도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10개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1학년이 전체적으로 457명, 2학년 576명, 3학년 433명 4학년 이상 629명 등 총 2,095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교수진은 91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 한국인 교수는 36명이다. 아울러 교수진만 확보되면 한국어 학과를 개설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자료

는 2008년 2월로써 보고서의 자료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 다른 나라와는 달리 베트남은 남쪽과 북쪽이 서로 다른 경향을 지니고 있는데 현재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한류나 한국어 교육 또한 하노이를 중심으로 더 활발하다. 이는 남쪽은 이미 서방세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서방기업도 활발히 진출하여 여건상 남쪽 지역 사람들은 서방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4.2 수요분석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수요를 크게 보면 고용 허가제에 따른 노동자들의 KLPT 시험을 위한 수요, 현지 한국 진출 기업이나 관광가이드 등 현지에서의 취업을 위한 수요, 대학에서의 정규과정 으로의 한국어 과나 한국학 관련학과와 관련이 있는 부분,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 등 한류에 따른 자발적 교육 수요 등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류에 의한 집단은 하노이나 호치민시 지역 등에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한국 드라마가 TV를 통해 방송이 되며 문화적 동질성이 비교적 크기에 한류가 상당하다고 했다. 일례로 시골에서 한 집에서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면 이웃까지 모여 한 20여명이 시청을 한다고 했다. 또한 하노이 한국문화원의 경우 한국어와 더불어 한국 문화와 역사 등을 실비로 받고 회원제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작년 한 해 20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었으며 올해 목표는 600명이라고 김상욱 원장은 말했다. 실제로 방문 결과 하루에도 대략 40명 정도가 방문하여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감상하는 것을 보았으며 설문조사도 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한류가 굳이 한국어 교육의 수요를 유발 할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 유명 연예인들의 팬클럽이 있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와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단 장기적 수요 창출에 있어서 이 모델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진행 상황을 보면 현재 한국어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10개 대학이며 1학년이 353명, 2학년이 576명, 3학년 433명, 4학년 544명, 5학년 85명이며 교수진은 현지인이 55명, 한국인 36명이었다. 하지만 한국영사관측 이야기로는 교수진만 확보되면 관련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고 했다. 현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수를 보면 인도네시아와 비교해서 얼마나 활발한가를 알 수 있다. 그만큼 대학에서의 수요는 크며 장래 한국 관련 기업에 취업이나 정부기관에 일하고자 하는 현지인의 수요 또한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현지 진출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호치민시와는 달리 하노이에는 현재 진출기업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인의 고용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크기에 스카우트 전쟁에 의해 월급이 몇 배 상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은 음식점이 그 전에는 24곳이었으나 작년 한 해만도 36군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 졸업자의 대부분이 실업자로 되는 마당에 한국 기업의 진출 추세에 따라 대학에서의 수요는 늘어나는 형편에 있다. 실제로 우리가 방문한 인문사회대학 동방학과 한국어 전공 교수와의 대화에서 교수는 인하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인력이 없어 당분간 대학교수로의 수요는 상당할 것이다. 또 입학시험에서 경쟁률이 15대 1일 정도로 한국어전공 지망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입학시험도 상당히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졸업 후 진로로는 외교부, 정부기관, 연구소, 한국기업 등에 취업이 잘되며, 통역으로만 일을 해도 보수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단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은 현지인 교수가 55명이 되며 한국인도 36명이 되지만 전문성이 일단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만난 한국어교수도 비록 2년간 석사학위를 받기는 했지만 한국어가 매우 서툴렀으며 문법이나 한자어 등에 대해서는 그 수준이 의심되었다. 또한 학과장이 우리나라의 모 대학교수와 같이 한국어 교재를 편찬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은 거의 없어 보였다.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교수요원의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종학당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생각해

불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지인이 아닌 한국인 교수에 대해 그들의 학력이 주로 학석사이며 아울러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또 KOICA를 통해 파견된 교수진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KOICA와의 협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KLPT에 대한 수요는 정부에서 거의 통제되고 있었다. 2006년에는 약 17,000명, 2007년에는 약 16,000명이 고용허가제에 따른 한국어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2008년에도 약 16,000명 정도가 한국어시험을 응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 정원인데 사회주의 체제인 베트남에서는 한국어시험 응시인원을 정원만큼만 지원받아서 시험을 치게 하면서 합격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이는 한국 정부에서 허용하는 숫자만큼 모집해서 사전교육을 하고 시험을 치르기는 하지만 형식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특히 KOICA에서 강사들이 교육을 도와주고 있지만 현지 자원봉사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거의 시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 결과 노동부의 보고서인 2007년 발간한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서 보면 고용주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만이 뒷받침하고 있다. 비록 한국에서의 고용을 원하는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만 여전히 한국정부의 정원제에 의해 숫자는 고정되어 있어 더 이상 크게 증가할 형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을 희망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수가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징후는 여러 분야에서 보였다. 특히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한 베트남 직원으로부터 이야기 듣기를 한 사설학원에서 한 클래스 당 2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총 10개 클래스가 3개월 단위로 운영된다고 했다. 즉, 1년 동안 한 사설학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은 약 800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하노이의 한국인이 밀집해 있는 충화지역에는 학원 수가 약 10개 정도로 조사되었으므로 1년 동안 하노이 충화지역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은 최대 약 8,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었다. 하지만 충화지역 이외는 생각보다는 활발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비인가 사설학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었으며 충화지역을 벗어나 한 사설학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었다. 단지 2명의 강사가

한 강좌를 맡고 있다고 했다. 또 호치민시는 하노이보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활발한 면도 있지만 이미 통일 전부터 서구화되어 있고 한국 기업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진출해 있고 북부지역과 달리 서방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거의 정점에 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보다는 서구지역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시간의 제약으로 현지답사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하노이와는 달리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었다. 또 다른 수요 가운데 하나인 베트남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곳이 하이퐁 지역에 있는데 현지에서 국제결혼을 주관하는 사업체측에 따르면 대략 600명 정도가 있다고 하였다. 이 수요는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국제결혼이 그런대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 적지만 이 정도의 수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반적으로 하노이 지역이든 어디든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거의 전부 비인가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베트남 전체의 수요를 대충 예상할 수 있었다. 그 숫자는 다음의 표와 같이 약 50,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노이 지역의 수요가 대략 8,000명 정도이지만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증대일로에 있어 한국어 수요 또한 증대 일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인가일지라도 사설 학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곳의 특색은 인도네시아처럼 산업 연수생 등으로 한국에 취업하기를 희망 사람들 보다는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이나 한국어 사설학원에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한국기업이나 한국어 사설학원에 취업을 하면 보통 직장의 월급에 작게는 3배 많게는 10개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현재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가이드를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는 한국인을 내보내고 베트남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운 베트남 사람들이 여행가이드 보다는 한국기업이나 사설학원의 월급이 더 많으므로 여행 가이드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여행 가이드를 베트

남 사람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한국어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한국 기업의 하노이 지역 진출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향후 5년간은 계속 유지 또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이미 호치민시를 보면 한국보다는 서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 곳의 경제권이 하노이지역보다는 낮기 때문이다. 또 단순히 한국어만을 가르치는 단순 학원 같은 기능만으로는 현지 사설학원과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으로, 따라서 세종학당의 목적과 더불어 목표를 세움에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지역	산출근거	한국어 수요 예측 인원	비고
베트남 전역	368클래스(대학생 3,4학년인 736명 학생 2명당 1 클래스) ×10명(한 클래스 당) ×4회(1년간)	36,840	KLPT 인원은 16,000명 으로 정부에서 고정
	한국문화원 학생 수	260	
* 하노이 충화지역 (한인 주거주 지역)	10개(사설학원 수) ×10클래스(한 사설학원 당) ×20명(한 클래스 당) ×4회(1년간)	8,000	
하이퐁지역	베트남 신부 교육	600	
계		53,700	

5. 결론 및 제언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짧은 시간에 제한된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이 조사의 한계성은 있다고 본다. 특히 사설학원들이 대부분 비인가 방식으로 운영되어 각국에서는 제대로 된 통계가 있지 않았

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어 교육 수요는 매우 큰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교육의 수요를 크게 보면 고용허가제에 따른 노동자들의 KLPT 시험을 위한 수요, 현지 한국 진출 기업이나 관광가이드 등 현지에서의 취업을 위한 수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 등 한류에 따른 자발적 교육 수요 등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면 현지 한국 진출 기업에 취업이 됨으로써 수입이 3-4 배 이상 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수요가 기업이 진출할수록 더욱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한류에 의한 집단은 이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 수요를 불러 올 만큼 크지는 않았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의 변사와 같은 사람이 더빙을 하고 있었으며 베트남 역시 더빙을 하여 방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는 없었다. 하지만 베트남처럼 아시아 전체적으로는 한류가 상당한 인기가 있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원이 점차 늘고 있다. 이는 하노이 주재 한국문화원의 회원 수 증가를 봐도 예측 가능하다. 2007년 200여명의 회원에서 올해는 600명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단지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 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층이 다양한 점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세종학당의 설립 운영 시 감안하였으면 한다. 단 현지 문화원이 있는 경우는 문화원과의 협력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없다면 문화원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수요 가운데 가장 큰 수요는 역시 KLPT에 따른 교육수요였다. 이미 나타났듯이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지에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또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는 한국에서 배정하는 인원에 따라 그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요구하는 숫자만큼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은 새로운 수요창출 지역으로 간주되며 특히 네팔의 경우 무려 10만 명 정도가 KLPT 시험대기 중이라는 현지 영사의 이야기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또 중국의 경우는 워낙 넓기에 수요조사는 어려웠지만 무한시의 경우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라도 한국어 수업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어 시험(B-TOPIK)을 위한 등록조차 3만 5천명의 정원이 순식간에 마감되는 바람에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에도 아직 잠재적 수요는 매우 크다고 보인다. 하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보듯이 현지 강사나 담당교수 등을 만나 본 결과 그들의 말하기 듣기 쓰기 수준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세종학당이 단순히 교육만 담당하기 보다는 그 기능 가운데 교수요원을 확보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미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만약 KLPT시험이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단순히 KLPT 시험만 되기 위해서 시험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올바른 한국어의 이해보다는 취업의 단순 수단으로 전략하여 시험자체가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보였기 때문이다. 즉 노동부 발간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서 보거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현지 방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당국에서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두 나라를 방문하여 얻은 느낌은 두 나라 정부의 부패 정도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매우 심한 편 이었다. 이는 결국 현지인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KLPT를 위한 현지 비인가 사설학원이 난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형편에서 세종학당이 단순 한국어 교육만 담당하게 된다면 서로 충돌하는 현상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태국이나 필리핀 등은 KLPT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한류에 대한 아시아의 각국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국의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세종학당의 운영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현지 진출 기업과 협약을 맺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한국기업에 필요한 인력 교육을 담당하는 방안이 되겠다. 이럴 경우 현지 학원과의 충돌은 상당히 배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단순한 언어 교육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까지 가르침으로써 진출기업의 문화적 충돌을 막으

면서 아울러 지한파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학당 프로젝트가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재외 동포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현지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며, 진출 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의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또 문화원이 없는 경우 문화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필요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교수요원을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에서의 한국어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주제2

세종학당 설립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발표: 김 재 훈
(대구대학교)

토론: 이 규 용
(한국노동연구원)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 재 훈 | 대구대학교 |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세종학당 설립의 필요성을 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분석하려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과 설립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 편익, 간접적 편익을 비교한다. 직접적 편익은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국외 한국어 학습자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및 기타 운영수입, 그리고 국외 파견 한국어 교원과 행정요원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된다.

간접적 편익에는 국외에 투자한 한국기업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현지인들이 증가했을 때에 나타날 현지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난 국가들과 한국과의 무역 증대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그리고 국외 한국어 사용인구 증가가 한국인의 영어 사용의 필요성을 일부 감소시켜서 발생할 한국인의 영어 학습 비용 감소 등이 있을 수 있다.

영어와 같이 이미 세계 언어가 된 경우에는 국외 자국어 보급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낳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출되어 있다. 또 외국으로부터 이주민의 유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나라들 경우에도 유입된 이주민이 자국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의 소득, 따라서 국내 생산성의 증대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들은 주로 장기 시계열분석을 이용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어의 국외 보급의 역사가 일천하고, 또 이주민의 유입의 역사도 일천하다. 따라서 기존 외국 선행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계열분석을 통한 모형 분석방법이 우리의 경우에는 적용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체적인 혹은 우회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어의 국외 보급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

2. 세종학당 설립 추진의 필요성

국의 한국어 교육 또는 한민족의 민족 교육을 위해서는 이미 세계 곳곳에 한글 학교 또는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2007년 4월 1일 현재 국외 한글학교는 모두 1,517개교로서 14개국에서 9,487명의 교원이 94,319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그 외 일본에서는 244개의 강습소에서 8,982명의 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한글 외에 전반적인 민족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학교는 14개국 26개의 학교가 있어서 798명의 교원(그 중 본국에서 파견된 교원 72명)이 9,448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의 학생 숫자를 제외 동포 1천 명당 수로 표시해 보면 전체적으로 14.73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평균치에 미달하는 곳이 중국이다. 중국은 동포 1천 명당 1.46명의 학생이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 276만 2천 명에서 192만 4천 명을 뺀 83만 8천 명은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이 중국에서 살게 된 교포라 할 수 있다. 새로이 늘어난 교포 1천 명당 한국학교 학생의 숫자도 4.8명에 머물러 평균치에 크게 모자라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간(여기에서는 2003-07년의 4년간에 대한) 현지 동포의 증감 상황에 비추어 한국(한글)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역시 4년간 28.82%의

교포 증가율을 보이는데 한국 또는 한글학교의 숫자가 적은 형편이고, 중국 일본을 제외한 여타 아시아국에서의 교포 증가율이 무려 95.72%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포 1천 명당 학생 숫자는 17.49명에 머물러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 정책 당국의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새로이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니, 이들이 바로 한국 경제 및 한국 사회의 발전에 따라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순수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한류)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국외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다. 우리나라에는 2000-01년에 30만 명 전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해서 2003년부터는 40만 명 전후의 숫자를 2007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8월 17일부터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 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고 나서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고용허가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 한 달 월급이 100만 동(7만 원 정도)인 베트남보다 한국은 한 달에 1,200만 동(75만 원 정도)으로 12배를 받을 수 있고, 네팔 역시 현지보다 한국에서 10배 이상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월급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인 우즈베키스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국어 열풍이 부는 것이다(YTN, 2007.8.10, 머니투데이, 2008.1.7).

이 열풍은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인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주관 한국어 능력 시험에 1997년에는 2,274명이 응시했으나, 2000년 4,850명, 2003년 1만 416명, 2005년 2만 3,401명, 2006년 3만 259명 등으로 시험 시행 10년 만에 무려 13배나 늘었다. 그리고 연 1회 시행에서 2회 시행으로 시험 시행 횟수를 늘린 2007년의 9월 16일 있었던 시험에는 전 세계 23개 나라 72개 지역에서 2006년에 비해 260% 늘어난 8만 1,600여 명이 응시했다. 외국어 능력 시험을 응시하려면 적어도 초급 1, 2단계 혹은 중급 1, 2단계까지도 이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례

일단 지역별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는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각 학교당 교원의 수는 계획에 따라 최소 10명이고, 책임자와 행정 요원이 최소 3명이 필요하다. 세종학당은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그리고 설립 연도부터 3년째까지는 정원의 30% 이상, 6년째까지는 정원의 50% 이상, 9년째까지는 80% 이상이 되게 비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교원은 지금 당장은 국외 현지에서 충원하기가 어렵고 한국에서 파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종학당의 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교원 수인 10명 중 5명은 국내에서 파견되고, 5명은 현지에서 양성되거나 인증 과정을 거쳐 발탁된 인원으로 충원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또 행정을 담당하는 3인 중 책임자 1인은 국내에서 파견할 것이라 가정한다. 세종학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내 혹은 국외 대학은 이러한 교원 인력을 갖추어가면서 그만큼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국내와 국외에서 창출하게 된다.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산술적인 한국인 강사 인력의 수요를 도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1단계 설립 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 전망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2012	2013	2014	2015	총계
몽골	신설학당	5개	5개	5개	5개	5개	25개	0	0	0	0	25
	신규교원	5	10	15	20	25	75	20	15	10	5	125
중국	신설학당	10개	10개	10개	15개	15개	60개	0	0	0	0	60
	신규교원	10	20	30	45	60	165	50	40	30	15	300
중앙 아시아	신설학당	3개	3개	3개	3개	3개	15개	0	0	0	0	15
	신규교원	3	6	9	12	15	45	12	9	6	3	75
계		18	36	54	72	90	285	82	64	46	23	500

몽골 지역은 2007년부터 5개의 학당이 각각 매년 1명씩 5개년간 충원해야 하고 2008년에 개교한 세종학당 5개교도 마찬가지로 매년 1명씩 5개년간 충원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2011년까지 25개 교에서 모두 75명, 그리고 2015년까지 총계 125명의 한국어 교원을 국내에서 충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강사 수요가 발생해서 제1차 계획에 의한 세종학당 설립은 2011년까지 285명, 2015년까지 적어도 총 500명의 한국어 교원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제2단계 세종학당 설립 계획에 따른 강사 인력 수요는 2012년에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학당별로 1명씩 20개 학당에서 5년간 누적적으로 매년 20명의 강사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2016년까지 총 300명의 교원을, 2020년까지 모두 500명의 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제1차, 제2차 세종학당 설립 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85명, 2016년까지 누계 800명이며, 2020년까지 최소한 누계 1,000명의 한국어 강사 수요를 창출한다.

이외에도 각 학당은 행정 요원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 3명 중 2명은 현지에서 채용하고 1명씩을 국내에서 파견한다고 가정하면 국내에서 1차 계획에 따라 100명, 2차 계획에 따라 100명씩을 파견하게 된다. 즉 200명의 행정 요원 수요가 발생한다. 결국, 1-2단계 세종학당 설립을 통해 국외에서 1,200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3.1.2. 세종학당의 직접적 경제적 비용과 편익

모든 사업은 효과만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며, 특히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 예산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종학당의 경우 교육 시설을 새로이 건축해서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정부 내 같은 부서 소속으로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재외 한국 문화원과 협력하거나, 현지의 대학교 혹은 각종 한국어 교육 기관 또는 국내 대학 등과 업무 협정을 통해 개설하려는 것이 특징이다(세종학당 운영 규정 제4조, 5조).

〈표 4〉 제1차 세종학당 소요 예산 및 투자 계획

(단위 : 백만 원)

추진과제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평균
연번	세부과제							
1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1,050	910	3,050	4,210	5,260	14,480	3,124
	1-1 시설비 지원	430	710	990	1,230	1,960	5,320	1,064
	1-2 교원 인건비 지원	520	0	1,760	2,580	2,900	7,760	1,780
	1-3 개설 지역 조사 관리	100	200	300	400	400	1,400	280
2	전문인력 양성	480	110	1,560	1,960	2,460	6,570	1,434
	2-1 교원자격 인증제 운영	60	60	60	60	60	300	60
	2-2 교원 파견	200	0	800	900	1,000	2,900	620
	2-3 초청 연수	200	0	600	800	1,000	2,600	600
	2-4 현지 교사 재교육	20	50	100	200	400	770	154
3	한국어 교육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	200	400	1,000	1,500	2,000	5,100	1,026.8
4	온라인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	20	390	350	450	550	1,760	334
합계		2,594	1,800	6,375	8,100	8,100	29,594	5,918.8

따라서 시설 보유에 따른 비용은 전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이다. 인건비도 학당별로 최소 10명씩의 교원이 필요하도록 요건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 모두를 직접 정부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학당 설립에 관해 협력을 맺고 설립한 대학 또는 학교 기관들이 교원을 채용,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는 학당별로 1명씩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지원하면 된다. 단지 세종학당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임대료와 공공요금 및 강의료 등 최소한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운영규정 제9조).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비용을 보면 우선 제1차 계획에서는 학당 설립에 따른 소요 예산은 설립 비용과 운영 비용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비용, 한국어 교육 교재와 콘텐츠 개발·보급 비용, 온라인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 비용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계획에서 단계별·연차별로 지출되

는 예산은 2007년 25억 9천400만 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 18억 원, 2009년에 63억 7천500만 원 2010년에 81억, 2011년에 81억을 책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1차 계획에 따른 총 소요 예산은 295억 9천400만 원이며 연평균 59억 1천880만 원, 학당별로 2억 9천594만 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100개교가 설립될 2차 계획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648억 4천4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역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소요될 것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1차와 2차 계획을 합하여 총 944억 3천800만 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 표 5 > 세종학당 설립의 직접적 경제 효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	경제적 편익 (A)	경제적 비용 (B)	차이 (A-B)
1단계	2007	519	2,594	-2,075
	2008	360	1,800	-1,440
	2009	1,275	6,375	-5,100
	2010	1,620	8,100	-6,480
	2011	1,620	8,100	-6,480
2단계	2012	2,139	10,694	-8,555
	2013	1,980	9,900	-7,920
	2014	2,895	14,475	-11,580
	2015	3,240	16,200	-12,960
	2016	3,240	16,200	-12,960
	합계	18,888	94,438	-75,550

세종학당 설립과 운영에 따른 직접적 경제적 편익은 금전적 수입과 학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요의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세종학당의 수강료와 교재 수입이 직접적 경제 편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종학당의 강의는 초급 1과 초급 2, 그리고 중급 1과 중급 2를 기본 과정으로 하며 추가로 고급 과정과 맞춤형 강의에

대해서만 유료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급이나 맞춤형 강의에 대한 수요는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종학당 운영에 따른 학생들로부터의 금전적 수입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세종학당이 매년 예산 대비 일정 부분, 즉 총예산의 20%를 매년 학생들에 대한 수강료와 교재비 기타 매점이나 기념품 판매수입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2007년 경제적 비용은 25억 94백만 원이지만 경제적 편익은 이보다 월등히 작은 5억 19백만 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20억 75백만 원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을 합계를 비교하면 총 경제적 편익은 188억 8천8백만 원이고 총 경제적 비용은 944억 3천8백만 원으로 그 차이인 755억 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세종학당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예단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종학당의 목적은 한국어를 널리 알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어란 상품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학적으로 볼 때 국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경제적 외부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 지출은 초기 일정 기간에는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봐도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설립 목적이 단순한 언어의 전달이 아니고 각 나라의 이해를 돕고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일 이외에도 문화·과학·기술·교육 분야의 상호 협력 촉진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 전파의 파생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자원 조달에서 정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 기부금과 자체 수입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가령 영국은 정부 보조금 57%, 민간 기부금 3% 그리고 영어 교습비, 운영 수익 등에서의 자체 수입으로 40%를 충당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정부 보조금 85%, 민간 기부금 6%와 함께 운영 수익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9%를 충당한다. 독일은 정부 보조금 67%와 자체 수입 33%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은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3.2. 세종학당 설립의 간접적 경제 효과

3.2.1.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국내 기업의 국외 투자는 1997년을 정점으로 외환 위기 발발 이후 감소했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현재 한국의 국외 투자 기업, 국외 지사 숫자는 모두 4만 102개에 이르며, 누계 투자액은 신고액 기준으로 880억 5천411만 달러, 실제액 기준으로 567억 7천799만 달러에 이른다(무역협회 내부 자료). 이러한 한국 국외 투자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서 고용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보면 2001년과 2002년 기준으로 73만 8천531명과 78만 8천888이다. 업체당 볼 때 120.9명과 115.6명, 투자액 1백만 달러당 고용 유발 인원은 71.4명과 63.2명이다.

왕성하게 늘어나는 국외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 소통의 곤란함이다. 그 때문에 현지 교민들을 많이 채용해 왔다. 그러나 현지어 혹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현지인의 차별 없는 고용과 대우가 국외 투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긴요하다. 게다가 국외 투자 기업이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니라 현지 시장을 향한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면 시장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고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 법인 사원과 현지 사회, 현지 법인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또 현지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사원이 점점 더 필요해진다.

이렇게 국외에 한국어가 보급됨으로써 국외투자기업에 생산성 증대효과와 시장확대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그 효과의 크기를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그 효과를 현지에서의 통역고용비용 감소효과를 통해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외 투자에서 우선 부딪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통역을 고용하게 된다. 유럽과 북미와 같이 영어가 통하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통역을 고용하기가 쉽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내의 전문 통역사의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현지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통역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표 6〉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
(단위 : 개, \$)

지역	기업 수	공급 부족 시 통역 고용 비용 (A)	적정 공급 시 통역 고용 비용 (B)	A-B	통역 비용 감소 효과 (기업 수×(A-B))
중국	19,253	600~1,000	200~330	270~800	5,198,310~15,402,400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8,793	600~1,000	200~330	270~800	2,374,110~7,034,400
합계	28,046				7,572,420~22,436,800

주 : 중국 5,198,310\$~15,402,400\$=19,253×(600\$~1,000\$-200\$~330\$)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2,374,110\$~7,034,400\$=8,793×(600\$~1,000\$-200\$~330\$)

적정 수요의 통역 임금을 추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가정을 해야 한다. 정확한 적정 통역사의 임금을 추정하기는 자료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분석이다. 따라서 현지 가이드가 10달러에서 최근에는 30~50달러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통역의 임금이 기존보다 약 3배~5배가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 또한, 현재 공급 부족 상태의 통역 임금은 600~1,000달러를 호가하고 전문 통역은 1,500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대략 1,000달러라고 가정한다. 즉 공급 부족의 통역비용이 한 기업당 600~1,500달러가 들고, 공급 부족이 없으면 적정 비용은 약 200~350달러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통역 고용 비용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지역별 기업 수×

(공급 부족 시의 임금-적정 공급 시의 임금)

위와 같이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통역 고용 비용의 감소는 세종학당 설립이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정했을

때 최소 757만 달러에서 최대 2천244만 달러의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 환율 900원을 곱해 계산하면 68억 1천3백만 원~201억 9천6백만 원의 통역비 감소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비용감소 효과는 세종학당 설립에 따라 발생할 국외투자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의 최소 부분이라 추산할 수 있다.

3.2.2.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

국외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이 늘어나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이는 곧 무역 증대로 나타난다. 이에 관해 계량적으로 분석한 Hutchison(2002)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에서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10% 증가할 때 수출과 수입이 1.3%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10% 증가할 때 수출이 1.7%, 수입이 2.3%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에 비해 수출에 대해 1.3배 더 중요하고 수입에 대해 1.7배 더 중요한 것이다.¹⁾ 이렇게 언어의 국외 보급은 교역 증대 효과를 낳고, 언어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아직 외국에서 한국어 사용이 영어만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외국에서의 연구를 그대로 적용하여 추계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런 분석을 참고삼아 외국에서 한국어 사용의 교역 증대 효과를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어 보급으로 인한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는 우선 한류의 확산을 빼고는 논할 수 없다.

한국 언론에 소개된 바와 같이 중국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류는 주로 청소년층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다. 한류가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 수출에 이바지하려면 특정한 연령층이 아닌 서민들에게까지 전반적으로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보급이

1) 이에 관한 유사한 연구로 Gould(1994), Boisso & Ferantino(1997), Crystal(1997), Chiswick & Miller(1998), Rauch(1999) 등이 있다.

확대되면 한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한국어 보급과 한류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먼저 상품 부문에서 조사 대상 5개국(중국, 일본, 홍콩, 대만, 태국)에 대한 한류의 수출 증대 효과가 9억 1,800만 달러로 이들 국가에 대한 소비재 총수출액 127억 5,200만 달러의 7.2%에 달하였다.

문화 산업의 업종별 수출 추이를 보면 증가 추세에 어떤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출판업, 주로 국외 자본의 하청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애니메이션 등과 달리 음악, 영화, 방송 등과 같이 그 내용 면에서 국적성이 비교적 뚜렷한 업종은 2001년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03-04년부터 큰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 중 영화·방송 프로그램 분야를 보면, 2005년에는 영화 수출은 對日수출 급증을 배경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한 7천6백만 달러, 방송 프로그램(드라마) 수출은 동 73.3% 증가한 1억 2천 1.8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5년 총 문화 콘텐츠 수출 규모는 전년대비 31.6% 증가한 12억 3천6백만 달러로 2003년 이후 급증세를 이어갔다.

외국 관광객 유치 분야에서는 2004년 총 관광객 증가 수 96.8만 명 중 한류로 인한 관광객 증가 수는 64.7만 명으로 66.9%를 차지하였으며, 분석 대상 4개국(일본, 중국, 대만, 태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증가 수 83.0만 명 중 78.0%를 점하여 한류가 관광객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관광 산업에 대한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은 뚜렷하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에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고 따라서 한류와 한국어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종학당에서 배출되는 한국의 학습자 수는 10개교가 설립되는 2007년에 연간 6천-8천 명이 될 것이며 그 후 가속적으로 증가해서 60개교가 설립되는 2011년까지 누계 99,000 또는 13만 2,000명이 될 것이라 추산된다. 이들 세종학당 졸업생들이 국외에서 한류의 전령사가 되어 한국의 문화 산업, 더 나아가 한국 상품의 수요자, 또 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만큼 한국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다.

조동성(2007)의 2006년도 국가 브랜드 가치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브랜드 가치는 (1) 미국 7만 2천10억 달러 (2) 독일 4만 8천620억 달러 (3) 영국 2만 7천660억 달러 (4) 일본 2만 6천550억 달러 (5) 프랑스 2만 5천290억 달러 등이고, 이 중 한국은 8천660억 달러로 노르웨이와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브랜드 파워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반응으로 광고를 통해 올릴 수도 있지만 문화적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한류의 열풍과 함께 한국어의 국제화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고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진행될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한국의 브랜드 가치 증대가 얼마나 될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K.Hutchison(2002)은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10% 증가할 때 수출이 1.7%, 수입이 2.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결과를 브랜드 가치 증대에 대입시켜 보면,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어 사용 인구가 1% 증가할 때 한국의 2006년도 브랜드 가치 8,660억 달러가 0.17%, 14억 7,220만 달러 증가하여 8,674억 7,220달러로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세종학당 설립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1조 3,250억 원 상승시킨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로 대체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3.2.3.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일반적인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그 출신국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다. 그러나 언어 소통 능력 부족 때문에 유입국에서는 단순 노동 종사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아 취업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A.Gonzalez(2000)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남미계 이주민들은 영어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득이 17% 높아진다. 종사 직종도 영어 구사 능력이 취약할 때는 서비스직, 생산직이 대부분이지만 영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면서 전문직과 사무직

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어 사용 능력 가운데에도 회화 능력은 체재 기간에 따라 상승해 가지만 문자 해독(읽기) 능력은 교육과 학습에 의해 상승해간다(Chiswick 1991).²⁾

우리나라에는 지금 약 40만 명 전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해 있다. 특히 2005년 8월 17일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5월 말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체류자들의 평균 체류 기간을 보면 일반 외국인인은 16.0개월, 특례자는 21.0개월로 나타났다.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과 그들의 언어 소통 능력, 그리고 소득 수준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B.R.Chiswick & P.W.Miller, 1995)에 따르면 장래 체류 예상 기간이 유입국에서의 언어 습득 노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는 아직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는 명시적으로 외국인의 최대 3년간 한국 내 고용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동기 부여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을 보면 채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61.7%)이 신체 조건이어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령(54.3%), 출신 국가(51.3%), 한국어 능력(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요구하는 사업장들이 대체로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이고 고용 이유가 주로 육체적 노동의 요소가 비중이 높은 단순 노동이라 하더라도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직무 수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외국 인력의 직무 수행에 관한 요인별 영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요인으로서 언어 문제가 66.1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 사업주가 평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생산성 및 노동 비용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근로 시간은 내국인 근로자보다

2) 이에 관한 유사 연구로 G.J.Borjas(1994), G.Carliner(1995), E.Funkhouser(1996), J.E.Hayfron(1999), R.Rivera-Batiz(1990) 등이 있다.

다소 높은 101.5%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량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의 94.7%, 생산성은 89.0%, 임금 수준은 86.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건설업과 요식업은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각각 91.5%, 94.8% 수준이고, 임금 수준이 각각 88.7%와 96.2%에 이르고 있다. 이 두 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로 중국 조선족 출신임을 생각하면 결국 한국어 소통 능력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5년 한국 식당 종업원의 임금은 한국인이 월 100만 원, 조선족은 60만 원으로 40% 차이가 났지만 매년 격차가 줄어 최근에는 모두 월 13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은 이미 작년부터 조선족은 한국인과 꼭 같이 130만 원을 받고 있으며 가사도우미(가정부)는 150만 원인 한국인과 격차가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 140만 원으로서 임금 격차는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³⁾ 조선족이 30%를 차지하는 건설 일용 직종도 조선족의 급여가 한국인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잡부와 목수 모두 일당이 1만~2만 원 차이로 줄어들었다(길림신문, 2007.8.9).

이렇게 볼 때 국내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 중 중국 조선족을 제외한 숫자를 20만 명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증상 수준으로 향상되면 생산성이 지금보다 10-20% 상승하여 내국인 근로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럴 때 그들의 임금 수준이 요식업의 식당 종업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월 130만 원 수준으로 즉, 15%인 월 19만 5천 원, 연간 234만 원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20만 명에 대해 계산해 보면 4천680억 원의 임금 소득 증대와 그만큼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추산할 수 있다.

3) 2006년 8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조선족은 22만 1,000여 명이고 불법 체류자(약 3만 2,000명)를 포함하면 25만여 명, 이들의 남녀비례는 1대 1 정도이며, 이중 44.7%가 음식점 취업 희망자로서 10만 명 이상의 조선족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한국의 거의 대부분 음식점에서 조선족들이 일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3.2.4. 국내 영어 교육비 감소 효과

현재 한국은 급격하게 진행된 세계화의 물결 속에 대외 지향적 경제 구조가 정착됨에 따라 전 국민이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영어 교육에 쏟아붓고 있다. 오로지 영어 사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조기 유학이 일반화되고, 소위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제수지 상의 외국 여행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서 국가적으로 외화유출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현지에서 한국어가 보급되어 한국기업의 국외 사업장에서 적어도 현지인 중견 간부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면 한국 최고 관리자들이 현지어 습득은 불가피하겠지만 영어 사용에 따른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외 한국어 보급이 우선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교육 수지 적자를 보완해줄 것이고, 국내에서 영어 교육을 위해 전 국가적으로 투자되는 비용 일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유학생 교류의 실태를 보면 200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3만 2,557명으로 이는 2000년 6,160명, 2003년 1만 2,314명에 비해 급속히 늘고 있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2만 9,227명으로 전체의 89.9%에 달한다(국정브리핑 2007.5.1). 하지만, 국내 학생들의 국외 유학 혹은 연수로 나가는 인원의 숫자와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은 국내 유학 혹은 연수 관련 상황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외 유학 혹은 연수와 관련해서 지출한 돈은 2006년 1-7월간만 보더라도 모두 24억 3천만 달러(2조 3천300억 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에 외국인 학생들이 지출한 돈은 그 0.4%에 불과한 1천50만 달러에 그쳐서 교육 수지 적자가 24억 1천95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한국은행 자료).

〈표 7〉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유학생의 변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유학생
2005년	643	2,100	약 50만 명	3만 2,500명
2012년	1,000	3,000	약 80만 명	5만 명
차이	357	900	약 30만 명	1만 7,500명

< 표 8 >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교육 수지 적자의 변화

	유학생	수입	지출	수지
2005년	3만 2천500명	1,050만 달러 (100억 6천7백만 원)	24억 3천만 달러 (2조 3천300억 원)	24억 1천950만 달러 (2조 3천199억 원)
2012년	5만 명	200억 원	2조 3천300억 원	2조 3천100억 원
차이	1만 7천500명			99억 원

세종학당의 계획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950개의 학당을 설립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파급 효과는 한국어 강좌와 한글학교 수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의 약 50만 명의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수는 대폭 늘어나 약 80만 명까지 추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 수의 증가는 국내로의 유학생의 수를 연쇄적으로 늘리게 된다. 따라서 2012년에는 유학생이 5만 명이 되고 이로 인해 교육 수지가 2005년에 2조 3천199억 적자이지만 2012년에는 2조 3천100억 원으로 되어 99억 원의 경상 수지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국외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증가해서 한국인 투자자들이 국외 사업장에서 현지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최소한 영어 사용 부담은 일부 줄일 수 있을 경우 국내에서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는 영어 교육 비용 일부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화를 위해 국외 어학 연수비와 국내에서 최근 조성되고 있는 영어 마을, 그리고 국외 세종학당 설립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국내 설립되고 있는 영어 마을은 그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조성 후 운영의 성공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조성 후 운영이 순조롭지 못하여 수요가 줄어들면 운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비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한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연간 운영비는 이용과 운영에 관한 전망에 따라 지원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경기도 영어 마을은 이용 인

원 연간 200명 기준 5박 6일 프로그램의 연간 상시(50주) 운영비가 약 39억 원, K대학은 약 36억 9천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신미정, 2005).

〈표 9〉 지역형 영어 마을 예와 세종학당의 연간 운영비 비교

영어 마을 운영 비목	소요액	영어 마을 운영 비목	소요액
인건비	9억 원	제세 공과금	1억 5천만 원
식비	4억 원	시설 관리비	2억 원
교재 구입비	2억 5천만 원	광고 홍보비	5천만 원
소모품비	2천4백만 원	기념품 제작비	3백만 원
용역 임대료	2천만 원	버스 임대료	1천8백만 원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리비	1천만 원	예비비	3천만 원
영어 마을 연간 운영비(100명 기준) : 총 50주 합계 20억 5천500만 원 (200명 기준) : 총 50주 합계 36억 9천900만 원 세종학당 연간 설립 및 운영비(200명 기준) 지원 : 연간 5천919만 원			

자료 : 신미정(2005)에서 작성

이 37억 원의 운영비에 대해 그 중 75%를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부담하면 지원금은 27.75억 원이 되고 50%를 지원할 경우 지원금은 18.5억 원이 된다. 연간 36억 9천900만 원의 운영비가 입소자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비해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비용 지출은 1차와 2차 계획에 따라 각각 295억 9천400만 원이라고 추정되었다. 이는 연평균 59억 1천880만 원이며, 학당 별로 5년간 2억 9,594만 원, 연간 5천919만 원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용은 영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인 국외 연수 비용 300여 억 원, 영어 마을 운영비 36억 9,900만 원 등과 커다란 차이가 있고 그만큼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4. 결론- 세종학당 설립의 효과와 국외 한국어교육의 체계

세종 학당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총비용과 총편익을 요약해서 비교해보면 <표 10>과 같다. 총 경제적 비용은 1차와 2차 계획 모두 합계하면 944억 3천800만 원 이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2020년까지 1,000명의 한국어 교원 수요, 200명 의 행정요원 수요 등 1,2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직접적 경제 효과는 (10년간) 755억 5천40만 원, 연간 75억 5천504만 원의 적자가 된다.

〈표 10〉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1차, 2차 세종학당 설립/운영의 총비용 (연간)	944억 3천800만 원 94억 4천380만 원
직접적 총편익 (연간)	188억 8천760만 원 18억 8천876만 원
간접적 총편익(연간)	1조 8천267억 9천500만 원
1)국의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201억 9천600만 원
2)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	1조 3천250억 원
3)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생산성 증대	4천680억 원
4)국내 영어 교육 비용 감소 효과 (교육 수지 개선 효과)	99억 원
(영어 마을 1곳 운영비 감소 효과)	36억 9천900만 원
고용창출 효과	교원 1,000명, 행정요원 200명 ▽75억
직접적 경제 효과(연간)	5천504만 원
전반적 경제 효과(연간)	1조 8천192억 3천996만 원
전반적 비용편익비율	192.6

간접적 경제 효과는 ①국의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201억 9천600만 원, ②국의 한국어 보급에 따른 한국의 브랜드 가치 0.17%, 8천674억 7천220달러, 즉 1조 3천250억 원 상승, ③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과 생산성이 15%(A.Gonzalez(2000) 등은 17%), 즉 4천680억 원 증대, ④국 내 영어 교육비의 감소 효과, 즉 99억 원의 교육 수지 개선 효과와 최소 영어 마

을 1곳의 연간 운영비 감소 효과 36억 9천900만 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효과는 1조 8천 192억 3천996만 원이 된다. 그 결과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편익비율은 192.6 이 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은 초기 매물비용에 해당하는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자 대비 편익이 더 적은 적자를 낳지만, 국외에서 대중적 차원에서 한국어를 보급시키는 막대한 효과를 낳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표 11〉 2006년도 한국어 교육 관련 전부 부처 간 실행 예산

부처	기관	예산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외 동포교육과	37억 4천만 원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재외 한국 문화원	16억 4천만 원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협력과, 한국국제협력단, 재외국민재단	145억 8천만 원

국의 한국어 보급 사업은 세종학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 협의회’에서 확정된 2006년 사업은 총 11개 기관에서 총 200억 원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 중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들이 14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교육인적자원부로서 37억 4천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1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을 시행하였다. 여타 부서의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산출되지 않아서 부서 간 사업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국외 외국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보급 사업이 가장 폭넓은 효과를 낳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세종학당의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낳을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 한국어 학습 수요

가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 수요에 부응하는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국가적 투자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 얼핏 봐서 동일한 사업에 서로 다른 부서를 통해 국가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외 한국어 교육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각 부서 간 중복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 사업의 통합 내지는 바람직한 역할 분담(특화)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국정브리핑

길림신문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문화산업백서』, 『문화정책백서』 각 연도

세계일보

주프랑스 한국 문화원(http://www.coree-culture.org/kr_cour01.php)

주한 독일문화원(<http://www.goethe.de/ins/kr/seo/koindex.htm>)

주한 영국문화원(<http://www.britishcouncil.org/kr/korea>)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http://www.jpfo.or.kr/>)

주한 프랑스문화원(http://www.france.or.kr/CCF_kr/index.htm)

한겨레신문

한국대학신문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후퉁강신문

국립국어원(2007), 「세종학당 설립 기본계획」

_____, 『21세기 세종계획 백서』

김번욱 이상직(2001), 「중국인의 시각에서 본 대중국 투자기업 현지화 실태조사」,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

김재형 이승태 홍기석(200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한국
개발연구원

- 김재훈(1998), 「발전도상경제의 노동용역 수출」, 『동서경제연구』 제10집 제1권, 한국동서경제학회, pp.41-72
- _____ (1998), 「화교경제 네트워크의 구조와 행태」,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4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93-121
- _____ (1999), 「화교경제 네트워크와 중화경제권의 형성」, 『공간과사회』, 통권 제12호, 한국공간환경학회, pp.134-165
- 박기현(2005), 「한류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연구』,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박현 유경준 김석영 곽승준(2004),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신미정(2005), 「대구광역시 영어 마을 조성의 타당성 및 파급 효과 검토」, 대구경북연구원
- 유길상 이규용 박영범 박성재(2005),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노동시장 실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2007),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 정갑영(2006),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조항록(2007), 「전환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학술회의 발표논문
- 왕한석 한건수 양명희(2005),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배우기와 문화 적응」, 국립국어원
- 외교통상부(2005), 「재외 동포현황(2005년도)」
- 조동성(2007), 「2006연도 국가브랜드 가치평가 연구결과」, 산업정책연구원
- 조명성(2004),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교역증진효과 조사」, 재외동포재단
- 한국관광공사(2004), 『한류관광마케팅의 파급 효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 한국노동연구원(200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 經濟産業省(2006), 『グローバル經濟戰略』
- 日本國際交流基金(2005), 「日本國際交流基金年報」

- Boisso,D and M.Ferantino(1997), Economic distance, cultural distance, and openness in international trade : empirical puzzle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12,no.4, pp.456-84
- Borjas,G.J.(1994),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2, issue 4, pages 1667-1717
- Carliner,G.(1995), The Language Ability of U.S. Immigrants : Assimilation and Cohort Effects, NBER Working Papers, No 5222
- Chiswick,B.R. & P.W.Miller(1995), The Endogeneity between Language and Earnings : International Analysi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3,no.2, pp.246-288
- Dustmann,D.(1999), Temporary migration, Human capital, and language fluency of migr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1(2), pp.297-314
- Gonzalez,A.(2000), The Acquisition and Labor Market Value of Four English Skills : New Evidence from NAL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18, issue3, pp.259-69
- Gould,D.M.(1994), Immigration links to the home country:empirical implications for U.S. bilateral trade flow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6, pp.302-16
- Hayfron,J.E.(2001), Language Training, Language Proficiency and Earnings of Immigrants in Norway, *Applied Economics*, vol. 33, issue 15, pp. 1971-79
- Head,K. and J.Ries(1998),Immigration and trade creation : economic evidence from Canada,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1,1, February,pp.47-62
- Hutchinson,W.K.(2002), Does ease of communication increase trade? Commonality of language and bilateral trade,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49, no.5, November, pp.544-556

Rauch, J. and V. Trindade (2002), Ethnic Chinese networks in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4, no. 1, pp. 116-30

Rivera-Batiz, F. (1990),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Economic Progress of
Immigrants, Economics Letters 34, pp. 295-300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토론문

이 규 용 | 한국노동연구원 |

- 국제교역의 증대에 따라 국경 간 인력이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 2002년 UN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약 1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사람들을 ‘이주자국가(migrant nation)’라는 가상의 국가로 치면 인구 규모가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5위에 해당할 만큼 인력의 국제이동이 활발

- 한국의 경우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인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입국자 기준으로 보면 1995년 290만명에서 2006년에 단기체류 532만명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
 - 특히 고용허가제 등 취업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력은 방문취업으로 입국한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65만여명 수준에 이룸
 - 이와 같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규모의 증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한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해외진출도 확대추이
 - WTO 협상이나 국가간 FTA 협정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어서 한국어의 보급 확대를 통한 교역과정에서의 편익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청되는 실정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 보급을 위한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본 논문은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비용과 편익분석을 통해 수행함
 - 비용은 직접비용을 추계하고 편익은 직접적 편익(고용창출, 수익)과 간접적 편익(국의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 한국제품의 수출증대효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 국내 영어 교육비 감소효과)으로 구분하여 분석
 - 본 논문에서 비용은 고정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편익은 가변성이 큰 만큼 시간적 변화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 자료의 제약 하에서 적절한 가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됨

- 본 논문의 핵심은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간접적 경제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본 논문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언급하고자 함
 - 총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간접적 경제효과에서 한국어 보급 확대에 따른 한국에 대한 인식의 확대,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같은 사회적 편익에 대한 논의도 함께 언급되었으면 함
 - 국외 투자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통역비용의 감소로만 추계하였는데, 이 외에도 현지 채용인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체득으로 기업내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 한국인 관리자와 현지채용인력간의 교류의 원활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한국제품의 수출 증대효과에서 외국인 관광객유치는 분리하여 한국내 유입 유학생 증가 내용과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었으면 함. 즉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결과적으로 한국내 유입외국인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됨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에서 임금상승효과를 생산성증가와 연계하여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저숙련 외국인력이 임금수준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증가로 연계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한국어 능력제고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바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최근 들어 전문기술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언어의 장벽으로 중소기업에서 이들 인력의 활용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 보급은 중소기업에서의 전문기술 외국인력 활용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국내 영어 교육비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 끝으로 동 사업의 비용과 편익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언급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이 후속연구로 이어 졌으면 함

3부

세종학당과 한국어 교육

사회 : 정호성 (국립국어원)

주제3 -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주제4 -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방안



주제3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발표: 송 향 근
(부산외국어대학교)

토론: 박 희 양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송 향 근 | 부산외국어대학교 |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급증하고 학습자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커져 가는 국내외의 한국어 교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인력을 조사·발굴해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어 교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 수급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없고 교육 기관별, 혹은 지원 기관별로 이루어져 왔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외의 경우, 대학이나 세종학당, 문화원이나 교육원, 한국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도 여성 결혼 이민자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대개 비전문가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고, 이들을 교육 현장에 적절히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수준 제고를 위해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교원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여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특히 2016년까지 국외에 200개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춘 교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시행 및 한국어 교육의 발전, 나아가 국가 홍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향후 4년 간(2008년~2011년)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자가 필요한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사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어 교원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또한 세종학당이나 국가 파견 해외 교육기관, 다문화 가정 및 귀국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제시된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검토하고, 자격 부여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새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어 교육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 한국어 교원 현황 및 향후 수요 분석

2.1. 한국어 교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교육 기관

1)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현재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54개교와 기타 6개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는 대략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이 중 대략 전체 교원의 51% 정도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또한 표본 조사를 통해 예측한 향후 4년간 채용 인원 수(예정)는 2008년 513명, 2009년 580명, 2010년 671명, 2011년 664명으로 총 2,428명에 이른다.

〈표 1〉 향후 4년간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교원 수요 예상치

인원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예상 인원(명)		513	580	671	664	2,428

2) 세종학당

2007년 세종학당에서 필요로 한 파견 교원 수는 몽골, 중국, 중앙아시아 포함하여 총 18명이며, 세종학당 교원의 자격증 보유 비율은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만을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100%라 할 수 있다. 한편, 향후 4년간 세종 학당이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견 한국어 교원의 수는 2008년 36명, 2009년 54명, 2010년 77명, 2011년 100명으로 총 267명이다.

〈표 2〉 향후 4년간의 세종학당 파견 교원 수요 예상치

인원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예상 인원(명)		36	54	77	100	267

3) 국외 대학

2007년에 국외 대학으로 파견된 한국어 교원 수는 90여 명이다. 이들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지원을 받고 파견되는데 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점차 한국어 교육학 석사 학위 이상이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를 파견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지원 기관에서 국외대학에

파견되는 한국어 교원을 자격증 소지자로 의무화한다면 향후 4년 간 매년 90여 명씩 총 360명 가량의 한국어 교원 자격자가 필요할 것이다.

4) 귀국자녀 교육을 위한 초중학교

2007년 현재 귀국자녀를 위한 특별반이 개설된 학교가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1개교이며, 여기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원은 총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일반 교사들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기관의 특성상 향후 채용 인원을 예상할 수 없었다.

5)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2007년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는 5개교이며, 여기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원은 총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일반 교사들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기관의 특성상 향후 채용 인원을 예상할 수 없었다.

2.2. 한국어 교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않는 교육 기관

아래의 교육 기관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

표본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의 평균 교원 수는 18.3명인데 전체 기관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총 교원의 수는 산정할 수 없었다. 이들 중 36.8%가 교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

표본 조사에 따르면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의 평균 교원 수는 5.9명인데 전체 기관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총교원의 수는 산정할 수 없었다. 이들 중 12.5%가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일반 외국인을 위한 학원이나 자원 봉사 기관

기관의 특성 상 이들 기관의 수나 한국어 교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4) 한글학교

국외 각지에 설립되어 있는 한글학교의 총 교원 수는 2007년 말 현재 14,172명이었으며, 현지 교민이나 유학생이 주로 한글학교 교원의 업무를 맡고 있다.

2.3. 향후 4년간의 한국어 교원 수요 공급 분석

2007년까지 배출된 한국어 교원 자격증 보유자의 총수는 2급과 3급을 포함하여 1,984명이었다.

〈표 3〉 한국어 교원 자격 보유자 수

연도별 급수	연도별 인원(명)	급수별 합계(명)
2006연도 2급	269	454
2007연도 2급	185	
2006연도 3급	599	1,053
2007연도 3급	454	
합계		1,507

그리고 이들 중 63%는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고, 향후 교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전체 인원수의 24%인 476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향후 4년간 교원 자격 보유 예상 인원수는 2급 자격 취득 예정자가 1,600명¹⁾, 3급 자격 취득 예정자가 3,600명²⁾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4년(2008년~2011년) 간 교원의 총 수요와 총 공급 수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향후 4년(2008년~2011년) 간 한국어 교원의 총 수요

인원	기관	대학부설기관	세종학당	국외대학	총
	예상 인원(명)		2,428	267	372

〈표 5〉 향후 4년(2008년~2011년) 간 한국어 교원의 총 공급

인원	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기 자격증 소유자	2급 자격증 소지 예정자	3급 자격증 소지 예정자	총
	예상 인원(명)		476	1,600	3,600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수요는 3,067명인데 총 공급은 4,876명이다. 일견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것으로 보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 교육원, 한국어 학원 등의 잠재적 수요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및 귀국자녀 특별반 교사들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

- 1) 이는 학부 과정 7개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10여 개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0여 개교에서 매년 400명의 한국어 교육 전공 졸업자가 배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 2)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자격 부여 기준에 근거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3장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자격 부여 기준에 따르면 그 수는 큰 폭으로 줄 것이다.

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2.1.과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 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교사가 반드시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일정 정도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교사가 교육을 담당해도 무방한 기관이 있다. 이에 3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교사들에게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들을 보다 역량 있는 교사로 개발하기 위한 재교육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 검토 및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9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부칙 2조에 규정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을 검토하고, 그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진단한 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현행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 및 문제 제기

국어기본법 제19조와 이에 의거해 제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①항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 동포(이하 “재외 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재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국어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①항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 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교원 1급

한국어 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 교육 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 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한국어 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

위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 교원 양성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국어 교원의 자질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제시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의 기준이 1) 객관적이고 타당한가, 2)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원 수급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가지는 문제점을 진단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논의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교육 비전공자에게도 한국어 교육 전공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 2) 현 시행령의 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한국어 교육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가?
- 3)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제13조 제1항 관련)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영역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 규정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에 충분한가?
- 4) 현행 시행령에는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승급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승급을 하는 데는 교육 경력 이외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승급 요건으로 어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 5) 현재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부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한국어 교원’과 구별하여 ‘한국어 지도사’ 제도를 마련할 경우 ‘한국어 지도사’ 자격증 교부의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가?

3.2. 개선 방안

지금부터 위에서 제시한 논의 과제를 하나씩 검토해 가며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1. 자격 부여 기준

〈논의 과제 1〉 한국어 교육 비전공자에게도 한국어 교육 전공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 1) 한국어 교육 전공자에게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복수전공 포함)으로

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부칙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분류표에도 이미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존재하며, 국내에 학부 과정으로 7개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10여개 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으로 20여개 교에 전공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여기서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 수는 약 4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어 교육이 고유한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전공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교육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전공자에게 해당 분야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자격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현 시행령이 일정 자격을 갖춘 비전공자에게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만든 것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의 배출이 충분한 현 시점에서는 자격 부여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비전공자에게는 ‘한국어 교원’이 아닌 다른 자격을 신설하여 한국어 교육 자격을 부여한다.

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2조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

어 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므로 1)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로,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큰 자산이며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공자에게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다른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 자격을 부여한 후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제 2>에서 함께 논한다.

<논의 과제 2> 현 시행령의 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한국어 교육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가?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1)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나 (2) 시행령 시행 전에 국내외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만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제 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현행 시행령에 의거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던 1), 2)에 해당하는 자들은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자가 아니므로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내외 대학 부설 교육기관을 비롯한 여성결혼이민자 교육기관, 이주노동자 교육기관 및 국외의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에서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때 일정한 한국어 교육 역량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는 아니나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했거나 체계를 갖춘 신뢰할 만한 교육기관에서 8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한국어 교육의 준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 교육 전공자는 아니나 한국어교육 유관학과나 유관학과가 연계해 만든 협동과정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과목을 공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어교육 전공자는 아니나 일정 수준의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공자에게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그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자격(가칭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만들어 자격을 부여한 후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시행령에서는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했거나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3급 자격을 부여했으나, ‘한국어 지도사’ 자격 부여의 기준은 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지도사’ 자격은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구분되므로, 현행 시행령의 3급 자격 부여 기준보다는 완화시켜 일정 정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나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1) (1)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거나 (2) 한국어교육 전공자는 아니나 한국어교육 유관학과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한 자 중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단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은 시험 문항의 수준을 낮추고 문항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한국어 교육 전공자나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자, 120시간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교육 전공학과가 아닌 유관학과에서, 혹은 유관학과가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전공을 독립 전공으로 설정해 운영하지 않고 교육과정만을 개설해 운영하는 대학이 있으며, 이러

한 학과에서 공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 자라 하더라도 이들은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아니므로 지금까지는 취득 학점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관학과나 유관학과가 연계해 만든 협동과정에서 공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 경우는 주 전공의 경우 최소 720시간(45학점), 부전공의 경우 최소 336시간(21학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120시간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합격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한국어 교원’이 아닌 ‘한국어 지도사’로 변경하는 경우,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현행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은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교육 관련 지식과 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폭 넓게 부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제도를 완화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문항의 수준을 낮추고 문항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2)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도 대학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경력을 ‘시행령 시행 전 국내의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을 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경력을 국내의 대학에서의 경력만으로 제한한 것은 체계적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활용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서의 교육 경력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적을 받아 온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은 대학뿐만 아니

라 국내의 국제교육진흥원이나 외국인학교, 국외의 중고등학교,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한국학교 등에서는 물론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교육 기관, 이주 노동자 대상 교육 기관, 한글학교 등 다양한 교육의 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의 한국어 교사들은 해당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수법을 익히고 개발하여,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가진 후에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격증은 아니지만, 본인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의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각종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교원들에게 해당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국어 지도사’ 자격(한글학교 한국어 지도사,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지도사, 이주노동자 한국어 지도사, 중국에서의 한국어 지도사 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해당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한 교사의 교육 경력을 인정받고 싶은 기관은 국립국어원에 등록하여 기관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800시간은 한국어 교육자로서 일정한 자질을 갖추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교육 시간이다.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 대상자는 여성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들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주당 교육 시간은 대체로 2~4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같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3년 정도 교육하면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300시간 이상 한국어를 교육한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어 지도사’ 제도의 마련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의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하고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행령 이전의 교육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교육 경력도 모두 인정한다. 단, 최근까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어 지도사’ 자격 받

급 신청 시점에서 7년 이내의 교육 경력만을 인정한다.

그런데 교육 경력을 이용해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어 교육 이론을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한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육학 영역의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3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자들이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섯 개 영역 중 현직 교사에게 유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³⁾ 전체 교육 시간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50~60시간이 적절할 것이다.⁴⁾

- 3)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일정 시간 한국어 교수법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여성 결혼 이민자의 수도 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는 자신의 모국어를 활용해 같은 언어권이나 문화권에서 온 후배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으며, 문화 비교적 관점에서 또한 자신의 한국 적응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느 교사보다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선발하여⁵⁾ 한

3) [별표 1]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 한국어 교육자는 재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4)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먼저 국립국어원이나 국립국어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정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일정 시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자에게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⁶⁾을 실시한 후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해 한국어 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의 효율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한국에 정착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돕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어 학습과 문화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세종학당의 교원 수급을 위해서 국외 대학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사로 일하는 자에게는 한시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

세종학당은 2007~2011년에 동남아시아·몽골, 중국, 서남아시아에 100개교, 2012~2016년에 중동아프리카, 북미·유럽·중남미에 100개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에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지의 수준 높은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에서 양성한 양질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

세종학당은 교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설립년도부터 3년째까지는 정원의 30% 이상, 6년째까지는 정원의 50% 이상, 9년째까지는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국외 현지에서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재정상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많은 교원을 파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현지의 유능한

-
- 5) 선발의 기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말하기 능력은 별도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 6) 교육과정은 국어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교육 내용 구성과 시간 수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면 될 것이다.

교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세종학당의 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원 중에는 오랜 기간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 많다. 따라서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 대학의 역량 있는 한국어 교육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시행령 수정안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은 한국어학과 관련된 오랜 연구 경력과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의 한국어 교수 요원으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한 ‘한국어 교원’들이 충원될 수 있을 때까지 한 시적으로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춘 국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자 중 세종학당 교원으로 일하는 자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요구되는 적절한 교육 경력은 2,000시간인데, 이는 주당 10시간씩 40주를 교육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5년에 해당하는 교육 시간이다.

3.2.2.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학점

〈논의 과제 3〉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제13조 제1항 관련)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영역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 규정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에 충분한가?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6〉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제13조 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 1])

번호	영역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9학점	9~10 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학부의 경우 45학점을, 대학원의 경우 18학점을 취득하면 되고,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부전공으로 21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이 필수 이수 학점을 5개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어 교원의 자질을 갖추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인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필수 취득 학점 수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 교원의 교육 능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어학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필수 이수 학점이 적은 것은 총 취득 학점 규정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과목의 내용 및 학점 수를 고려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학점 요건에 맞춰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를 총 수로 두고, 이를 영역별로 적절히 배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 별로 이수해야 할 필수 학점 수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합해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이수 학점 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영역별로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학 영역의 경우 대학에서는 주전공자(복수전공자 포함)는 6학점, 부전공자는 3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전공자는 2과목, 부전공자는 1과목을 취득하면 된다. 한국어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한국어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데 1~2과목의 수강만으로는 한국어학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어학 영역의 이수 학점 수를 최소한 6~9학점으로 늘려, 이수 과목 수를 2~3과목으로라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원의 경우는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과 통합하여 3~4학점(1~2과목)을 필수 이수 학점으로 요구하므로 한국어학 영역은 전혀 듣지 않아도 무방하다. 대학이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과는 달리 대학원은 한국어학 영역과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을 통합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필수 이수 학점을 영역 별로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어학 영역에서의 필수 이수 학점은 3~4학점이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에서는 학부에서 한국어학 영역을 선수 학습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학점 취득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의 경우는 대학이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필수 이수 학점이나 시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 현재 한국어학 영역과 통합되어 있는 것을 구분하여 3~4학점으로 필수 이수 학점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의 경우, 대학의 부전공과 대학원에서의 필수 이수 학점을 변경해야 한다. 대학 주 전공의 필수이수 학점이 24학점인 데 비해 부전공의 필수 이수 학점은 9학점이다. 즉, 대학에서 3과목만 수강하면 부전공을 인정받는 것인데 3과목의 수강으로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 수 없다. 따라서 부전공의 필수 이수 학점을 15학점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원의 경우도 현재의 규정에는 9~10학점으로 되어 있으나 12학점으로 늘려 4~5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한국 문화 영역과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은 대학과 대학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모두 특별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교과목을 늘려 대학에서의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경우 필수 이수 학점을 45학점에서 48학점으로, 부전공의 경우는 21학점에서 30학점으로, 대학원의 경우 18학점을 24학점으로 조정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조정안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조정안

번호	영역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9학점	6학점	9~10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15학점	12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8학점	30학점	26학점	120시간

<논의 과제 4> 현행 시행령에는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승급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승급을 하는 데는 교육 경력 이외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승급 요건으로 어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①항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승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7)

7) 현행 시행령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급 조건에

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나. 제3호 가목(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규정에서는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만을 승급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기간 중의 교육 시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보다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사로 인정받아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간 이외에도 교육 시간, 보수 교육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한국어 교원 자격 승급의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1,200시간의 교육 시간도 함께 요구된다.⁸⁾ 3년의 교육 경력과 1,200시간의 교육 시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승급 자격이 주어지므로 3년 간 1,0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3급 보유자는 200시간의 교육 시간을 채워야만 승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00시간의 교육 시간도 함께 요구된다.⁹⁾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할 때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정안에서는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다. 제3호 나목(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8) 1,200시간의 교육 시간은 주당 8~10시간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3년 간 교육할 수 있는 시간 수이다.

9) 2,000시간의 교육 시간은 주당 8~10시간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5년 간 교육할 수 있

와 마찬가지로 5년의 교육 경력과 2,000시간의 교육 시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승급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현행 시행령에서는 승급에 필요한 경력으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대학 부설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학뿐만 아니라 공교육 기관(국제교육진흥원, 초·중·고등학교, 한국학교, 세종학당, 문화원, 교육원 등)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기관(한글학교, 인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 등) 등에서의 교육 경력도 승급의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단, 해당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한 교사의 교육 경력을 인정받고 싶은 기관은 국립국어원에 등록하여 기관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승급에 필요한 또 다른 요건은 교사 재교육 과정의 이수다.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교원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전문화된 교사로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보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국어 교육 이론이나 교수법 등으로 구성된 재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승급에 필요한 재교육과정은 [별표 1]의 다섯 개 영역 중 현직 교사에게 유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체 교육 시간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50~60시간이 적절할 것이다.

3.2.3. 자격 부여자

<논의 과제 5> 현재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부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한국어 교원’과 구별하여 ‘한국어 지도사’ 제도를 마련할 경우 ‘한국어 지도사’ 자격증 교부의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 ③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어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부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는 시간 수이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교부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어 지도사’의 경우는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권위나 전문성 면에서 구별되므로, 국립국어원장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 교원을 수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는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자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대상자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포함해 한국어 교육자나 한국학 전문가 희망자나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희망자 또는 취업 희망자 등이 주를 이룬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경험을 두루 갖춘 한국어 교육학 전공자라야 이들 학습자가 요구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특히 국내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교사가 다수 필요한 세종학당의 경우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현지의 교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교원을 국내에서 파견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한국에서 단기적으로 파견된 교원보다는 현지 사정에 밝은 교원이 교육 효과 측면에서도 더 나은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지

대학의 한국어 교원들에게 소정의 재교육 과정을 거친 후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해 세종학당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귀국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늘며 이들을 교육할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비전공자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며, 초·중등학교 교사 중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이나 3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귀국 자녀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효율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과 교육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진 현직 교사가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향후 수요가 더욱 증가할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 및 재외동포를 교육할 한국어 교원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경력과 연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마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해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한국어 지도사’로 훈련시켜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생활의 적응을 돕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돕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나 국가 기관이 파견하는 한국어 교원의 경우(파견 교사, 국제협력단, 교육원, 문화원, 한국학교 등)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자격을 제한해,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7), 『2007 세종학당 백서』.
- 국립국어원(2007), 『세종학당 설립 기본계획』.
- 국립국어원(2007), 『2007년도 한국어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중간 보고서』.
- 소라미(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 및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여성
 연구소 주최 ‘국제결혼 이주여성 : 쟁점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 재외동포재단(2007),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 조향록(2007), 『국어기본법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제18권 2호. 국제한국어교
 육학회.

-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 국제교육진흥원(<http://www.ied.go.kr>)
- 국제한국어교육학회(<http://www.iakle.com>)
- 노동부(<http://www.molab.go.kr>)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이중언어학회(<http://www.korbiling.org>)
- 재외동포재단(<http://www.okf.or.kr>)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http://www.korean-edu.net>)
- 한국국제교류재단(<http://www.kf.or.kr>)
- 한국국제협력단(<https://www.koica.go.kr>)
-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http://www.aks.ac.kr>)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의 토론문

박 희 양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

1. 한국어 교원 수급 논의의 필요성

송향근 교수님의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에 관한 논의는 한국어 교육의 열기가 국내외에서 점점 높아져가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한국어 교원의 전체적인 문제를 조망할 해 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보면 교사의 양성과 자격 인증, 재교육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어기본법으로 한국어 교원 제도를 만들기 전까지는 지침이 법적인 규정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현재도 한국어 교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동포 한글학교 교사를 비롯한 많은 한국어 교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한국어 교원 자격의 정비

송향근 교수님이 언급하신 한국어 교원의 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어 교원 수급이 어렵던 시기에 마련된 규정에 의

해서 충분한 교육내용 없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주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보다 철저한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 받고, 재교육도 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 실습에 대한 부분이 훨씬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원은 현장에서의 강의가 중요한데, 실습이나 참관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원자격을 받게 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한국어 지도사(가칭)’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채외동포 한글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범주’와는 또 다른 범주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주여성 중에서 한국어 지도사(가칭)를 양성하는 것도 새롭고도 중요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3. 몇 가지 질문사항

1) 한국어 교원의 재교육을 어떻게 교원 자격에 반영할 것인지?

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미 한국어 교사인 경우에 한국어 재교육의 필요성을 적게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교원자격에 반영하고 어떤 교육과정으로 교육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한글학교 교사의 경우 자격을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 좋은지?

채외동포 자녀들을 교육하는 한글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조건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학력이나, 전공, 경력, 지역협의회 활동 및 연수회 참여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한국어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지?

현재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한국어 교육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국내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자격 인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제 4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방안

발표: 허 용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이 재 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방안

허 용 | 한국외국어대학교 |

I. 세종학당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

1.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교육 과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민현식(2002)에 따르면 ‘교육과정 (curriculum)’이란 ‘교육 기관에 의하여 의도된 전 교과 활동 또는 그에 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이다.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에는 학습자 요구 분석, 교육 목적,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재, 교수학습법 및 평가 등이 있다.

교육과정은 다시 내용적인 측면과 결과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내용적인 측면은 교육과정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보는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교육 기관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내용(a course of study)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결과적인 측면은 교육과정을 교육 기관에서 의도한 수업 계획과 그에 따른 학습 결과로 보는 관점이다.

모국어 교육은 비교적 동일한 교육환경과 교육대상을 전제로 하므로 공통적인 교육과정의 수립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은 학습자 대상과 학습자의 요구, 학습 환경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 또한 결과적 측면의 교육과정 시각에서 볼 때 각 기관의 학습목표에 따라 그 체

계와 내용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담당할 세종학당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정립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교육 환경 분석과 학습자 요구 분석, 교사의 요구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이라는 큰 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세종 학당이 운영되는 현지의 요구 분석(상황분석 포함)과 세종학당과 유사하게 자국어 국외보급을 하고 있는 각 나라의 기관의 운영사례 분석, 국내 한국어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세종학당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와 목적에 따라 교육 내용이 구성하고자 했다. 향후 이에 따라 교재 개발과 교수학습법 개발, 평가 방법들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2. 세종학당 교육과정의 기본 토대 구축

현재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자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대표 기관의 관리 하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영국 문화원이나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도 이미 52개국 140개소에 ‘공자학원’을 설립 자국어와 문화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10개국 122개소에 ‘일본어국제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세종학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의 제정이다. 각 지역의 다양한 학습자가 가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에는 먼저 ‘표준화’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여기서 ‘표준화’라 함은 교육과정의 설치와 그 운영 기준을 제시한다

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표준화해야 할 사항에는, 첫째, 교육과정 등급화, 둘째, 교육 내용으로서의 교수요목, 셋째, 교육 용어, 넷째, 교수법 및 학습법, 다섯째, 교재 개발, 마지막으로 평가 체제 등이 있다.

1) 표준화된 교육 내용 구성

교육 내용의 구성은 세종학당의 교육 목적을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설립 취지와 그 교육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표준화된 교육 용어의 사용

교수 용어의 통일은 학습자들이 어느 곳에서든 한국어 학습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용어의 통일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학습자들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연속성을 경험하게 해 줄 것이다.

3) 표준화된 교수·학습법의 설계

통일된 교수학습법을 명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육을 받는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현지의 특성을 고려한 재량적인 교수학습법은 필요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준화된 교수학습법의 기반 위에 마련되어야 한다.

4) 표준화된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 내용의 전달에 있어 교재는 그 수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교육 목적을 반영한 표준화된 한국어 교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5) 표준화된 평가 체제 마련

세종학당의 교육 목적에 따른 교육 내용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평가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평가 체제에는 배치 고사, 성취도 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평가 척도, 평가 등급 부여 방식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국내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이 어떠한 틀로 구성되어야 하고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과는 어떤 차별성을 두고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전 연구로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국내 대표적 한국어 교육 기관인 연세대의 교육과정을 참고 자료로 제시한다.

〈표 1〉 연세대학교 한국어 회화 과정

과정	시간	대상	특징
정규 과정	10주 200시간	외국인 및 교포	6단계 과정(약 1년 반 소요)과 8단계 과정(약 2년 소요, 서양권 학생을 대상으로 말하기와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구분.
오후 과정	10주 120시간	오후 시간 활용을 원하는 주부, 직장인, 학생과 정규 과정 수강생	1급부터 6급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교과과정은 정규 과정에 준함. 한국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체험, 한국 문화 특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야간 과정	10주 90시간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 외국인 교수 등	1급부터 8급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교과 과정은 정규 과정에 준함.

〈표 2〉 연세대학교 한국어 특별 과정

과정	시간	대상	특징
시사 한국어	10주 90시간	고급 한국어 학습자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시사적 내용의 학습이 가능함.
비즈 니스 한국어	10주 60시간	중급 수준의 회사원, 주재원, 경영경제 관련 전공자	비즈니스와 관련된 중급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실제로 접하게 될 상황에서의 적절한 의사소통 연습을 중심으로 진행.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반	10주 60시간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고급 한국 어 학습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비하여 어휘와 문법을 총 정리하고 읽기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킴. 기술 문제와 예상 문제 풀이 등 실제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짐.
여름 특별 과정	5주 100시간	미주 지역 학생들	여름 방학을 활용해 한국어 연수와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프로그램. 방과 후 태권도, 동양화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등의 문화 체험도 가능.
단기 과정	3주 60시간	주로 일본과 동남아 지역의 대학생과 직 장인들	매년 여름 방학과 봄 방학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한국어 연수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프로그램. 오전은 한국어 수업, 오후는 문화 체험 시간으로 이루어짐.
전문 과정	10주 100시간	정규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학습자	뉴스, 시사, 문학 등 좀 더 세분화된 부분에서의 깊이 있는 한국어 학습이 가능함. 반복해서 2학기 수강이 가능함.

〈표 3〉 연세대학교 한국어 맞춤 과정

과정	대상	특징
위탁 과정	위탁생	외국인을 고용한 일반 기업 혹은 단체에서 한 반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 이상의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어 수업을 요청할 경우에 개설. 주한 미군들을 위한 위탁 과정은 꾸준히 진행됨.
개인반	개인 학습자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4. 국외 타 기관의 자국 언어 문화 보급 사례

국외 타 기관의 자국 언어 문화 보급 사례를 살펴봄으로 세종학당의 운영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타 기관에 대한 조사는 문헌 조사, 설문 조사, 해당 기관 방문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기관별 전체 비교 자료는 매우 방대함으로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특징과 운영상의 특징을 정리 분석한 표로 제시한다.

〈표 4〉 국외 타 기관의 자국 교육과정의 특징 - 정규과정

영국의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	일반 과정	어린이 대상	
		성인 학습자 대상	
	특별 과정	말하기 듣기, 작문, 어휘 보강, 시사 토론 등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Alliance Française)	일반 과정	입문 과정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 따른 언어 과정	
	특별 과정	숙성반, 회화, 듣기와 말하기, 독해와 작문, 문법, 신문 강독, 텔레비전 청해, 프랑스의 문명 발달, 토론 등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Goethe Institute)	일반 과정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 따른 언어 과정)	
	특별 과정	원격 강좌 (교사/ 학습자 코스)	
		개인 및 소그룹 강좌	
일본의 일본어국제센터	특별 과정	심화 학습 과정 (번역, 일본 문화, 대화 기술, 테마 토론, 청해, 작문 등)	
중국의 공자학원	일반 과정	일반 어학 강좌	
		문법 강좌	
	특별 과정	온라인 강좌	일반인 강좌

〈표 5〉 국외 타 기관의 자국 교육과정의 특징 - 현지 특화과정

영국의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	현지 특화 과정	비즈니스 영어 강좌 (모듈)
		시험 대비 강좌
		유학 준비 강좌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Alliance Française)	현지 특화 과정	시험 대비 강좌
		특별 수업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되는 수업)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Goethe Institute)	현지 특화 과정	비즈니스 강좌
		시험 대비 강좌
일본의 일본어국제센터	현지 특화 과정	교사 연수 프로그램
중국의 공자학원	현지 특화 과정	시험 대비 강좌
		교사 양성 강좌

〈표 6〉 국외 타 기관의 자국 운영상의 특징

기관명*	온라인 교육과 연계	기타 특강 및 문화 행사 개최	자료실 운영	학부모 워크숍 운영	교사 워크숍 운영
영국	○	○	○	○	○
프랑스			○		
독일	○	○	○		○
일본		○	○		○
중국	○				

* 편의상 기관명에는 나라 이름만 표시.

5. 세종학당 교육과정 제정을 위한 현지 요구 분석

세종학당의 운영과 교육과정 제정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지 학습자, 교수자의 요구 분석을 들 수 있다. 현재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중 몽골을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2007 몽골 지역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 현황

설립 장소	개설 과정										수업 시수
	초급 1		초급 2		초급 3		중급 1		중급 2		
	반	인원	반	인원	반	인원	반	인원	반	인원	
울란바토르 대학교	16	390	6	119	3	57					90분×4일×8주 90분×5일×6주
교육대학교	4	115	1	26			1	21	1	19	90분×4일×8주180분 ×5일×14주
국립 대학교	3	68	1	22							180분×2일×8주
합계	23	572	8	167	3	57	1	21	1	19	

- 1) 단계별 학습자들의 수업 참가 시수가 다르므로 단계별 학습자들의 성취도나 숙달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승급 관리가 일률적이지 않으며 학습자들이 세종학당을 옮겨가면서 학습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 2) 교육 시간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운영 방침이 정한 48시간은 실제 수업 진행의 경험으로 볼 때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상향 조정하여 기관별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규 과정이 각 8주 또는 16주로, 기관마다 각각의 운영방식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2주로 고정하기보다는 현지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세종학당의 교원은 현지인 교원과 한국인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 교원의 수는 세 곳 모두 20명으로 이 중 현지인이 9명, 한국인이 11명이다. 세종학당의 원활한 운영과 초급 과정 학습자 대상 수업 및 현지인과의 접촉, 문화 상호 교류를 위해 현지어가 가능한 현지인 교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들을 포함한 현지 한국인 교원을 위한 교원 양성 과정 또한 개설될 수 있을 것이다.
- 4) 학습자 분포는 일반인의 수가 가장 많아 약 70-80%에 이르며, 다음이 중고생, 공무원, 대학생의 순이다. 학습자의 분포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

로 볼 때 모든 한국어 과정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학습자의 학습 목적이나 연령층에 맞게 특화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특화 과정이나 특별 과정은 현지 사정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거나 교포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의 무역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나 한국 기업체가 많이 진출한 지역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한 한국어 과정의 개설도 필요할 것이다.
- 6) 울란바토르 대학에서는 한림 출판사에서 발간한 듣기, 말하기, 쓰기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국립사범대에서는 서울대 한국어 복사본을 사용하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 다수의 한국어 교재를 복사하여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동일 지역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각기 다른 교재를 사용하면서 통일된 교과과정과 동질의 교육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세종학당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 7) 몽골 지역 세종학당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으며 교사의 주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교재의 통일뿐 아니라 평가 방식의 통일도 필요하다. 배치 고사, 성취도 평가, 숙달도 평가 등 여러 세종학당에서 사용할 표준 평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

II. 세종학당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

1. 교육 목적

세종학당은 한국어 학습자가 다양화되고 각국의 언어·문화권을 확대하는 환경에서 문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현지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 내용 구성

정규 과정은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등급별 언어 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 문화와 현지문화 교육을 보장한다. 현지 특화 과정은 현지 공공 기관 종사자나 재외 동포, 국제 결혼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현지 한국어 교사의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특별 과정은 정규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한국어 수행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K5, K6 과정과 국내외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 세종 학당 교육 내용 구성 표

구분	과정명	과정의 특징	교육 인원	교육 기간	교육비
정규 과정	K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학당 개설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반 15~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기간 : 각 1학기 12주, 주 2회~3회(1주 당 총 240분 이상) 	무상 교육 (교재비 개인 부담)
	K2				
	K2				
	K4				
현지 특화 과정	공무원 등 공공 기관 종사자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한국어 교육 수요에 따라 개설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반 15~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기간 및 수업 시간 : 현지 수강자 수요와 실정에 따라 조정 	무상 교육 (교재비 개인 부담)
	세종학당 한국어 교사 재교육 과정				
	재외 동포 모국어 능력 향상 과정				
	국제 결혼 가정 부모 및 자녀 과정				
특별 과정	심화 과정 (K5, K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기간 및 수업 시간 : 현지 수강자 수요와 실정에 따라 조정 	유상 교육 (상호 협의 후 결정)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 과정				
	현지 기업 문화 적응 과정				

구분	과정명	과정의 특징	교육 인원	교육 기간	교육비
기타	각종 경연 대회 문화 관련 행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문화 행사와 접목하여 추진함으로써 해당 국가와의 문화 교류 증진 도모 			

2.1. 정규 과정

〈표 9〉 세종 학당 정규과정 교육 목표 및 내용 구성 표

정규과정	과정명	교육 목표	교육 내용
1년 4학기 (각 12주) 언어 : 6시간/주 * 12주 = 72시간 문화 : 2시간/주 * 12주 = 24시간	K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기초적인 공적·사적 대화 가능 매우 기초적인 문어 텍스트의 특정 정보를 이해하여 사용 가능 매우 기초적인 글쓰기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가족, 교통, 음식, 위치, 방송, 계절, 날씨, 장소, 시간 등’ 주제를 대상 ‘인사하기, 자기소개, 주문하기, 물건 사기, 길 찾기, 날씨 묘사, 방문하기, 전화하기 등’을 수행 학습 어휘가 유용성과 적절성을 위해 교육 어휘들의 문화적인 적절성에 특별한 주의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 당 혹은 시간 당 습득되어야 할 ‘생산적’ 어휘의 양과 ‘수용적’ 어휘의 양을 고려 기본적인 인칭 표현, 지시 대명사, 수사와 (일부) 단위 명사 고빈도의 명사, 고빈도 용언 교수 현장 용어 : 주변의 사물 이름 및 교수 관련 기본 용어 등이 대상이 된다.
	K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적인 공적·사적 대화 가능 기초적인 문어 텍스트의 특정 정보를 이해하여 사용 가능 기초적인 글쓰기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주제 ‘한국 음식, 교통, 공공시설 이용, 물건 사기, 여행’ 등을 대상 ‘음식 이해, 음식 맛 묘사,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기, 갈아타기, 표 사기, 편지 보내기, 초대하기, 물건 값 깎기, 전화 용건 보기, 병원 가기’ 등을 수행 기본적인 고유 명사, 간단한 묘사 표현 기초적 빈도 부사 혹은 강조 부사, 자주 쓰이는 보조사

정규과정	과정명	교육 목표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보조 용언, 고빈도 불규칙 용언 등이 대상
	K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공적·사적 대화 가능 - 기본적인 문어 텍스트의 특정 정보를 이해하여 사용가능 - 기본적인 글쓰기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주제 - 앞선 주제의 심화나 유사 주제로 확장이 가능하며 사회적 상황을 다루는 주제 - ‘방문과 초대에 응하기, 안부 전하기, 부탁 거절하기, 실수에 대해 사과하기, 간단한 업무보기, 자신의 느낌 말하기’ 등 수행 - 느낌을 표현하는 기초 어휘, 기본적인 한자어 - 주요 어휘와 관련된 연어 표현, 약간 복잡한 의미의 조사(‘만큼’, ‘처럼’, ‘대로’, ‘뻔’) - 어휘적 높임(계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편찮으시다), 기초적인 어휘적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기본적인 감탄사 등
	K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적·사적 대화 가능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어 텍스트의 특정 정보를 이해하여 사용 가능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글쓰기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주제 - 앞선 주제의 심화나 유사 주제로 확장이 가능하며 사회적 상황을 다루는 주제 - ‘설명하기, 대처하기, 의견 말하기’와 같은 새로운 과제와 기존의 과제의 심화 - 기본적인 한자어 어휘, 추상적인 어휘, 약간의 시사적인 어휘, 설명이나 상황 묘사에 필요한 어휘 - 불규칙 용언, 사용 빈도가 높은 비유적 용법과 숙어, 속담, 사자성어 - 사용 빈도가 높은 의성어, 의태어, 간단한 비유 표현, 복잡한 의미의 조사
평가 방안 (K1-K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둔다. 2) 성취도 평가를 근간으로 하여, 각 단계별 학습 목표와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의 어휘, 문법, 과제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을 참조하여 평가 범주를 확정한다. 3) 중간 평가와 기말 평가를 기준으로 하며(2회 실시), 현지 특성별 평가 횟수 및 시간의 적절성을 고려한다. 4) 평가 영역은 어휘 및 문법, 쓰기, 듣기, 읽기의 4 개영역으로 설정하며, 문항 수와 배점은 현지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배분한다. 주관식 출제가 필요한 경우는 각 영역별 배점을 10% 이내로 한다. 말하기를 제외한 모든 평가는 지필 시험으로 일원화하며, 말하기 평가의 경

정규과정	과정명	교육 목표	교육 내용
		<p>우는 수행 평가로 대체한다.</p> <p>5) 의사소통 기능의 영역의 특성에 따라 각 단계별 수행 평가의 비율, 실제 자료의 반영 비율, 평가 방법 등을 정한다. 성취도뿐만 아니라 숙달도를 평가에 대비할 수 있게 실제 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권고한다.</p> <p>6) 평가 내용은 발음 및 억양, 정확성(대화 발화, 문장 발화), 유창성, 다양성, 논리적 구성력, 어휘력·어휘 이해력, 문법 이해력, 문법 능력, 맞춤법·띄어쓰기, 대화 구성 능력, 문장 구성 능력, 이야기 구성 능력, 담화 이해력 등을 대상으로 한다.</p> <p>7) 연 1회의 성취도 평가(TOPIK) 응시 기회를 제공하여, 숙달도 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p>	

2.2. 현지 특화 과정

정규 과정과는 달리 현지 특화 과정은 지역별로 현지 학습자의 수요 및 실정에 따라 운영하는 맞춤형의 과정으로 국제결혼 가정 한국어 교육반과 세종학당 교사 재교육 과정, 재외 동포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과정 등이 해당된다.

〈표 10〉 세종 학당 현지 특화 과정 교육 목표 및 내용 구성 표

과정명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공무원 등 공공 기관 종사자 과정	- 한국 주재 대사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에 파견될 공무원 또는 외교관들을 비롯하여 관광 요원, 통역 요원 등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현지에서 교수한다.	<p>가. 외교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일상 회화 및 외교 관련 전문 한국어) - 한국의 일상 문화 - 한국의 사회 문화(대인 관계) 등 <p>나. 한국인 상대 직무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한국어

- 1) 특정 과정이나 커리큘럼의 내용을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를 측정하는 평가를 성취도 평가(Achievement Test)라고 한다. 성취도 평가는 학습 목표, 교육과정, 교수요목 설계 등 교수 학습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세종학당의 성취도 평가는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면에서 이들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과정명	교육 목표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직종 관련 한국어 - 대인 관계 예절 등
세종학당 한국어 교사 재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어 교사에게 새로운 언어 교수 이론, 한국어 문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언어 이론 교수하여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사의 질 제고 -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직접 교육 - 현지 교육자를 한국으로 초청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학 -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한국어 교육학 - 한국 문화 - 한국어 교육 실습(국내 우수 한국어 교육 기관 참관)
국제 결혼 가정 배우자 및 자녀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전통문화 등 한국 문화 습득 및 이해를 위한 내용을 포함 -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 과정은 국제결혼을 하여 현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한국으로의 이주 계획을 갖고 있는 반으로 나누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 한국 문화(전통문화 등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 한국 전통문화 실습(전통 악기, 전통 놀이 등) - 한국 역사 - 한국 정치 및 경제 등
재외 동포 모국어 능력 향상 과정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현지에서 대를 이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위 ‘국제결혼 가정 배우자 및 자녀 과정’ 중 현지 체류자 과정에 준한다.

2.3. 특별 과정

특별 과정은 고급 학습자나 특수 목적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정규 과정(K1-K4)을 마치거나 이에 준하는 한국어 수행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다 심화된 내용을 교육한다. 이에는 심화과정인 K5, K6 과정과 국내외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 과정,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있다.

〈표 11〉 세종 학당 특별 과정 교육 목표 및 내용 구성 표

과정명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심화과정 (K5, K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1-K4까지 학습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보다 발전시켜 필요한 경우 취업 또는 학업 등 전문 영역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 - 자신의 영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중급 정도) -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과 토론할 수 있는 능력 - 인간관계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경제 활동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통장 개설, 환전 등) - 쉬운 글을 읽고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기본적인 직장 업무 처리 능력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인들이 한국어 교사로서 자국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언어적·문화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 - 과정을 수료하여 현지 한국어 교사로 채용된 경우 ‘한국어 교사 재교육 과정’을 통하여 한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학 -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현지어와 한국어와의 대조 포함) - 한국어 교육학 - 한국 문화 - 한국어 교육 실습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과정을 이수한 자나 그에 준하는 자들 중에 한국 내 또는 현지의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한국어를 교육 - 한국인의 사고 방식과 문화(기업 문화 포함)를 교육하여 보다 쉽게 한국 기업에 - 적응할 수 있게 함 - 국내 취업 희망자 과정과 현지 취업 희망자 과정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 한국 문화 - 한국 예절 - 한국 사회(정치 및 경제) 등
현지 기업 문화 적응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이 한국 기업의 국외 지점 또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파견되었을 경우 그들을 대상으로 현지어와 현지의 문화를 교육하여 보다 쉽게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어 기초 과정 - 현지어 중급 과정 - 현지어 고급 과정 - 현지 문화 교육과정 - 현지 기업 문화 교육과정

III. 맺음말

지금까지 세종학당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세종학당은 한국어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밑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밑거름을 마련할 것이다. 한국어를 통한 한국의 역량 강화라는 당면과제를 놓고 볼 때 세종학당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세종학당의 성공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세종학당에 담을 내용, 즉 교육과정이다.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학당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본 연구에서 조사한 타 국가의 자국의 언어문화 보급을 위한 사례는 우리가 시행하려는 세종학당의 역할 모델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다. 이 조사에서 이미 선진국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 중국은 자국의 언어문화 보급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매우 체계적이고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았다. 또한 이미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각 기관의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요구 조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현재 세종학당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요구 조사 분석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점점 학습자의 분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과정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요구되며 학습자가 어느 지역에서든지 세종학당을 통해 일관된 한국어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세계화를 담당한 세종학당의 올바른 운영과 정체성 정립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먼저 세종학당의 설립 취지와 교육 목적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학습자가 다양화되고 각 국의 언어문화권을 확대하는 환경에서 문화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현지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수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은 단순한 언어교육 과정이 아닌 한국어 교

육과 더불어 한국 문화 교육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세종학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문화교육을 통해 한국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정규과정, 현지 특화 과정, 특별 과정, 기타로 세분하여 각 교육과정별 특징과 교육 인원, 교육 인원, 교육비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과정별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제시하여 구체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국어의 세계화와 한국 문화 교류를 통해 세계와 협력을 도모하려는 한국의 미래상을 위해 세종학당은 단순한 한국어교육 기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각 국의 작은 한국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세종학당 설립의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기관의 설립이 한국어문화교육에 이바지할 수는 없다. 세종학당의 설립 이전에 세종학당 운영에 있어 올바른 기준과 운영 방침 및 제반 사항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교재, 교원이 올바르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 행정 서비스 및 기타 제반 사항들을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세종학당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사업 주체의 일원화이다. 현재 한국어 해외 보급 사업은 외교부의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국제교류협력단, 문화부의 국립국어연구원·한국어세계화재단·해외문화원, 교육부의 한국교육원·국제교육진흥원 등 각 부처의 여러 산하단체에서 다양각색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성의 면에서는 좋으나, 영국의 영국문화원이나, 프랑스의 알리앙세 프랑세스, 독일의 괴테 하우스와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음으로 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보급을 세종학당 한곳에 집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해외에서의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은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일 때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종학당을 이러한 원 스톱 서비스 체제로 가고자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아우를 수 있으며, 동시에 ‘현지에서의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혜(2003).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분석」.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27.
- 강승호·김명숙·김정환·남현우·허숙(1996). 『현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김영아(199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김왕규·김정숙·조항록·정구향·조지민·김수정(2002). 『한국어 능력 시험의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유정(1999). 「한국어 능력 평가 연구 -숙달도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김하수 외(1997).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기본 모형 개발에 관한 최종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 민현식(2002). 『언어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와 교수 요목(syllabus)의 유형』. 21세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 문화사.
- 배두본(2000). 『외국어 교육과정론』. 한국 문화사.
- 백봉자(1998). 「한국어 교육 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 -연세대 한국어학당 1급, 2급의 성취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 15호, 이중언어학회, pp.141-167.
- 서상규·김하수(1997).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의 기본 모형 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한글 10, pp.279-315.
- 성태제(1996). 『문항 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안경화·김정화·최은규(2000).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67-83.

- 유럽 평의회 편, 김한란 외 옮김(2001). 『언어 학습·교수·평가를 위한 유럽공
통참조 기준』. 한국문화사.
- 임지룡(1991). 「국어 기초 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학회.
PP. 87~132.
-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조항록(2002). 「한국 정부의 재외 동포정책 연구-한국어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교육 14-1,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pp.249-278.
- Hughes, Arthur(1989).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chman, L. F. and S. Savignon(1986). The evaluation of communicative language
proficiency : a critique of the ACTFL oral interview, *Modern
Language Journal* 70.4.
- Bachman, L. F.(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Broucal, M.(1995). *The Heinle & Heinle TOEFL Test Assistant : Listening*, Heinle
& Heinle Publishers : Boston, MA.
- Brown, H. D.(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Prentice Hall Inc.
- Brown, J. D.(1995), *The Elements of Language Curriculum : A Systematic Approach
to Program Development*. Newbury House Teacher Development.
- Canale, M. & Swain, M.(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Davies, A.(1990). *Principles of Language Testing*, Oxford : Basil Blackwell.
- Lynch, Brian K.(1996), *Language Program Evaluation. Cambridge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nan, D.(1985),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Nunan, D.(1988), *Syllabus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Nunan, D.(1998),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 A Textbook for teachers*, Longman.

Richards, J. C. and Renandya, W. A.(2002),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vers, W. M. and Temperley, M. S.(1981),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Yang, H.(1992). The ACTFL English Oral Proficiency Interview : It's background and application, *English Teaching 43*, The College English Teacher Association of Korea.

<기타 자료 >

1997년 제1회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지.

1998년 제2회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지.

1999년 제3회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지.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정규반 1급-6급 시험 문제지.

1998년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 문화관광부·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Ambassade de France en Core'e(1994). DELF-DALF : Annales 94 Core'e du Sud(1994년도 프랑스어 능력 시험 연보).

The ACTFL Oral Proficiency Interview Tester Training Manual, The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Language Testing Unit(1986). Testing Handbook, Foreign Service Institute (미국 무성 언어 숙달도 테스트 자료).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방안’의 토론문

이 재 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설립된 세종학당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이 정교화·체계화·표준화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또한 발표자가 제안한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방안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생긴 몇 가지 의문점과 발표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세종학당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

I-1.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

발표자는 교육과정을 보는 관점을 1)교수·학습 내용으로 보는 관점, 2)학습 결과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과도 관련된다. 1)의 관점을 취하면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기술하게 되고, 2)의 관점을 취하면 교수·학습의 결과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인지적·정의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게 된다. 발표자는 어떤 관점에서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을 구성·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II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은 어떤 관점에서 기술되었는지 궁금하다.

I-2. 세종학당 교육과정의 기본 토대 구축

발표자는 세종학당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강조하면서 표준화해야 할 사항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절차적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다양한 주체로부터 공신력을 얻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이 실행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 또는 표준화하느냐가 중요하다. 발표자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 교육과정 구성 또는 표준화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한편, ‘표준화된 교육 용어의 사용’을 강조하였는데, 이 때 ‘교육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지시하는지 궁금하다. 즉 교수·학습 ‘과정’과 관련된 용어인지, 교수·학습 ‘내용’과 관련된 용어인지 명확하지 않다.

I-2. 국내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발표자는 세종학당 교육과정의 차별적 구성을 목적으로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을 분석한다고 하였는데, 1)제시한 연세대학교 교육과정은 ‘교육 현황’에 가깝고, ‘교육과정 현황’(구성 체계, 내용, 방법, 평가 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며, 교육과정 현황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 이러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

I-4. 국외 타 기관의 자국 언어 문화 보급 사례

문헌 조사, 설문 조사, 해당 기관 방문 조사를 통해 국외 타 기관의 자국어 보급 사례를 살펴보았다고 하였는데, 연구 방법별 연구 결과 및 성과가 매우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현재 제시된 연구 결과는 문헌 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확보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로 보인다. 설문 조사, 해당 기관 방문 조사 결과를 소상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설문 조사의 경우 설문 대상, 설문 기간, 설문 내용, 설문 분석 결과, 시사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I-5. 세종학당 교육과정 제정을 위한 현지 요구 분석

2)에서 “①정규 과정이 각 8주 또는 16주로, 기관마다 각각의 운영방식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②그러나 12주로 고정하기보다는 현지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①과 ②는 서로 상충하는 진술로 보인다.

3)에서 현지인 교원과 한국인 교원 양성 과정의 개설을 제안하였는데, 이와 함께 교원 자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 세종학당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

II-1. 교육 목적

제시된 교육 목적은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에 가깝다. 세종학당 교육과정 실행 또는 운영 결과로서 학습자가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어떤 성취를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목적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II-2. 교육 내용 구성

1) ‘현지 특화 과정’과 ‘특별 과정’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2) ‘정규 과정’의 ‘교육 목표’ 진술에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으로 과정별 교육 목표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료하지 않다. 3)‘교육 내용’이 다소 산만하게 기술되어 있다. 내용을 상황, 언어 기능, 문법, 어휘, 사회문화적 기능 등으로 범주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4)‘평가 방안’도 항목별로 제시하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평가 목적, 평가 요소, 평가 영역, 평가 영역별 문항 수, 배점, 평가 도구, 평가 방법, 평가 결과 해석 및 활용 방법, 문항 도구 제작 및 활용 시 유의점 등으로 나누어 기술할 필요가 있다. 5)‘현지 특화 과정’, ‘특별 과정’의 경우, 학습자 간에 수준과 관심이 다르므로 여기에 맞추어 ‘교육 내용’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체계적인 연구와 다양한 주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아울러 담아내야 한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서 안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내적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불필요한 트집을 잡지 않았는지 걱정된다. 일리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서 세종학당 교육과정 내용을 타당하게 구성하고, 교육과정 구성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4부

종합 토론문

좌장 : 조항록 (상명대학교)



「문화 다원성 시대, 언어 소통 기획을 위한 학술회」

김 정 속 | 고려대학교 |

2000년대 초까지는 주로 한국어 학습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교육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 세종학당의 설립이 기획되면서 국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되었다. 한국에 와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을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다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외의 폭 넓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세종학당의 설립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며, 앞으로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급 및 한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학당의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후속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종학당의 성공적 운영을 기대하며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지인 한국어 교원을 다수 양성해, 교육과 운영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학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확보이다. 현재는 교원 중 반은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반은 한국인을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고비용을 들여 한국인 교원을 상당수 파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현지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수가 부족한 설립 초기에는 한국인 교원을 다수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나, 세종학당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현지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한국에서 파견하는 교원의 수를 소수로 줄여야 한다.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현지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현지인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인 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현지인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 의해 교육이 실시될 때 한국어 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고 이를 통해 세종학당의 운영이 자생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둘째, 현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 ‘정규과정’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종학당의 ‘정규과정(K1~K4)’은 이른 바 일반 목적 한국어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과정으로 ‘심화과정’(취업, 학업 목적 한국어교육과정)과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세종학당 설립 지역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역이며 학습자의 상당수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규과정’을 일반 목적 한국어교육과정과 직업 목적 한국어교육과정으로 분리해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심화과정’으로 한국문화의 비중을 높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세종학당이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를 익혀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폭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한국 문화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세종학당 설립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권 교육 내에서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기 이전인 중고등학교 시기에 외국인들이 한국어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의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과목 개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종학당 설

립 지역은 한국어 학습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것으로 본다.

넷째, 국외에 한국어를 보급하려는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외에서 한국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현지에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보급하려고만 하는 일방향의 노력이 아닌,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한국에도 소개하는 양방향의 교류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이 문화·정치·경제·사회 방면의 교류를 위해 서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문화 다원성 시대에 한국어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 해외 교육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바탕으로 -

류 희 림 | YTN 부국장 |

1. 교재 문제

- 대부분 국내에서 제작된 교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각국의 현지 실정이나 수요 이유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텍스트에 사용되는 어휘나 장면설정이 현지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그러므로 허용 교수께서 교육 과정 개발 문제에서 지적하신대로 정규교과과정 외에 언급한 현지 특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 따라서 그에 따른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2. 교사 문제

(최근 파견되는 한국어 교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볼 때)

- 전체적으로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사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적음
- 그러나 당장의 수요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자격만으로 선발, 파견됨. 특히 자원 봉사의 경우 경력용 내지 체험용으로 지원하는 무경험의 20대 교사들이 많음.

- 그러므로 단기 활동이 되기 쉽고, 따라서 대강 임기 배우기 식이 되기 쉬움.
- 따라서 해외 활동 교사들 간 관계는 오히려 폐쇄적이 되어, 각자 알아서 하는 식이 됨.

3. 교사간 화합 문제

- 현재 해외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동일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간의 화합도 고려할 문제로 제기됨. 즉, 파견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 같은 현장 업무를 맡은 동료라는 생각보다 파견된 기관별 소속감이 더 커질 때 교육활동의 효과가 감해질 것임.

4. 해외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 문제

- 이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몇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한국어 교육을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김재원 교수님과 허용 교수님의 발표문에서 모두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여러 기관(세계화 재단, 국제교류재단, 코이카 등)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어 부서간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참고할 때, 프랑스의 Alliance, 독일의 Goethe Institut 등과 같이 일원화된 한 기관에서 자국어 및 문화 보급을 전적으로 맡을 때 일관성, 체계성, 효과성을 최대화 할 수 있고, 부수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 또한 한 기관에서 조직과 체계 및 자격을 갖추어서 통일성 있게 사업을 할 때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

5.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문제

- 일단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의 활동 관리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봄. 완전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많이 파견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교사들끼리 아무런 교류도 없고, 각자 개인 활동으로만 끝난다면 잘하든 못하든 각자의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의 기회도 가질 수 없고, 발전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따를 수 없음,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미팅이나 정보 교환이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국내에 비해 거의 전무함.
- 이 문제도 사업이 일원화되면 해결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봄.

6. 글로벌 한국 방송망 활용문제

- 세종학당 설립이 활성화될 경우 한국 TV 방송을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현재 전세계에 어디서나 무료로 수신이 가능한 한국어 방송은 YTN이 유일함. 특히 뉴스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살아 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하루에 몇 차례 방송을 한다면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국외 한국어 교육,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장 원 창 | 국제교육진흥원

먼저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이 국외 한국어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학당 설립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국외 한국어 교육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세종학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과 국력신장으로 한류열풍을 가져오고 그 결과 한국어 교육 수요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손중권 교수의 생생한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의 한국어 수요에 대한 현장 리포트는 앞으로 한국어의 세계화의 가능성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적절히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한다면 제가 근무했던 중앙아시아의 상황도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동남아시아의 한국어 수요자는 현지 외국인인데 반해서 중앙아시아의 한국어 학습의 열기의 진원지는 우리 동포인 고려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세종학당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 볼 때 재외동포교육 중심의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금까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원과의 기능적 측면에서나 본질적 측면에서 그 역할이 조정되어 국가 사업간의 상충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며, 교육과학부 국제교육진흥원,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

고 기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대구대 김재훈 교수의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한국어 교육 효과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시적인 계량화된 분석으로 명쾌한 설득을 하였습니다.

사실 국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얼마만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는데 김교수의 분석으로 세종학당의 미래의 밑그림이 확연하게 그려졌습니다.

김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세종학당의 설립 초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일종의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매몰비용으로 세종학당 건립으로 얻게 되는 간접적 경제 효과를 보아야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의 예산외에 민간보조금이나 자체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볼 때 비록 한국어가 아직은 영어나 프랑스어, 중국어에 비해서 경쟁력은 떨어지나 장기적으로 운영면은 점차 민간 영역으로 이양되고 정부는 한국어 교육자 파견,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공급 등의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총 295억 9천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기존의 한국교육원과 문화원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는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허용교수님이 말씀하신 세종학당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문화관광부, 교육

과학기술부, 각 대학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준별, 대상별, 기능별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하고, 외국의 현장에서는 국가별 교육환경과 학습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기존의 한국어 관련 대학이나 한글학교나 교육원 등이 수년에 걸쳐 개발한 현지의 교육과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송향근 교수님의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원 활용은 차치하고 세종학당에 파견할 인력의 선발 방안에서 현재의 한국어 교원 자격자와 한국어 지도사를 파견함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과 한국어 자생력 함양을 위해서 현지인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 춘 자에 대해서 필요한 연수를 받고 국가 공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능력있는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여한 교사자격증을 갖는 일반 교사들에게도 한국어학이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등 일정한 연수를 조건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와 같은 교원 자격증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디 한국어 교육도 광의의 교육의 범위로 전문적 교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어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도 ‘한국어 지도사’로 대우하면서 정식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국어교사를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세종학당 설립이 한국어 세계화라는 기차가 움직이는 레일이라면 그 레일위로 기차가 쉴새없이 달리도록 하는 것은 파견 교원의 일입니다. 세종학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설립된 학당에 꾸준하게 교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원 검정 연수나 시험을 통하여 합격한 교사들을 본봉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담하고 해외수당은 문화관광부에서 부담한다면 우수한 교사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들의 세종학당의 경험은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재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결론적으로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체계화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재외동포 교육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원과 문화원,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역할의 조정으로 각기 특화된 영역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의 한국어 교육을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바람직하게 보이나 사실상 그 교육기관의 학습 대상자와 기능이 다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제2조 2항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동포의 보호와 교육의 이행이라는 특수성과 한국어 세계화라는 보편성의 병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국외 보급 학술회의 토론문

- 세종학당은 21세기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본보기 제시 -

최 용 기 | 국립국어원 |

최근에 국어학계와 한국어 교육학계의 큰 화두는 한국어 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전 세계에 설립한 세종학당입니다. 지금까지 5개국 18개소에 세종학당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추가로 10개의 해외 한국문화원에 세종학당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들 개설 기관의 운영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한국어 교육은 재외동포와 교민을 중심으로 한 모국어 교육에 초점이 있었으며 유학생이나 대학 교수 등 소수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의 한국어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류 열풍과 한국 기업의 국외 진출 등으로 국외 현지인들의 한국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자국어 보급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외국인층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국립국어원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학당이 그런 방식입니다. 세종학당은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쌍방향 문화가 교류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지 외국인과 한국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현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이런 방식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1세기 자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식으로 유명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종학당은 국내에서도 한국어 국외 보급의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어 학계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동북아 지역의 한국 문화 산업 시장의 확대, 원활한 노동 인력의 공급, 한류 문화의 지속적 확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학당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세종학당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종학당 설립 운영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도 일부 한국어 교육자 중에는 이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국가 정책 차원의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이 정부 부처 안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아 갈등이 남아 있는데 이런 국책 사업이야말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세종학당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 민간 기업과 학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내의 한국어 교육은 그동안 정부가 관여하기 전에 민간 기업과 자원 봉사자가 주도해 왔는데 국외의 한국어 교육도 민간 기업과 전문가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종학당과 같은 국가사업일수록 민간 기업과 전문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외국 현지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외국의 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있어야 성공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내에 운영 본부를 두고 국외에 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형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국가별 특화 운영, 지역별 특별 교재 편찬, 국가별 특별 사업 개발, 한국어 교원 양성과 연수 프로그램 등도 세종학당이 풀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종합토론

최 주 열 | 선문대학교 |

21세기 문화시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문화 다원성 시대, 언어 소통 기획」 학술회의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미래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가는 데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무형의 문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은 물론 세계시민을 선도하는데도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화 하려는 시도는 국가발전 및 경쟁력을 위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본 학술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손중권 교수님의 「아시아권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분석 연구」, 김재훈 교수님의 「세종학당 설립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송향근 교수님의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허 용 교수님의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방안」 주제는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절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종학당을 세운 목적과 목표에 따른 한국어 교육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우선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쌍방향의 문화교류와 이해 촉진, 둘째, 지식인 중심의 엘리트 교육

에서 탈피, 대중적 한국어 교육의 확대, 셋째, 국가 간의 문화적 연대와 공존을 위한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나아가 세종학당 설립 배경을 보면 국제화 시대 국가 발전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외의 다양한 대중을 상대로 상호 문화 교류를 통해 공존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한국어 교육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을 시도 해 보면 국가 간 상호문화교류 과정에서 어차피 문화 간 비교는 불가피 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다 가치 있고 실용적인 문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선의의 문화 경쟁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국가발전과도 직결될 것입니다. 향후 문화경쟁력은 자국의 정치력이나 경제력 보다는 보다 가치 있는 문화의 질적 차이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 국가의 민족성과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생성된 문화는 존중되면서 상호 공존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종대학에서 추구하는 문화상호주의 원칙은 현대의 다문화사회 세계에서 문화교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외국인에 대한 문화교육은 자국 문화의 특성과 연계하여 인류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시민 교육적 차원에서 유용하게 수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화교육 내용 창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세계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류의 확산은 한 예가 될 것이며 한류의 생명력도 이러한 가치 발굴과 교육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점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의 기능교육을 넘어 장기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세계 사람들의 삶속에 유용하고 가치 있는 언어와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네 분의 주제발표 내용은 변화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을 고려하여 유효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의 관점과 연계하여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1. 아시아권의 한국어 교육 수요자는 한국 내 혹은 현지 한국 기업에 취업을 위한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지 한국어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 유학을 유도하여 지한파를 양성할 방안과 한류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 모색도 필요합니다.
2. 세종학당 운영의 경제적 효과는 국가 브랜드 향상의 가치와 지한파의 한국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은 계량적으로 부가가치를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인류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된 한국 문화의 가치는 미래 한국 문화의 생명력으로 전세계에 남아질 것이며, 한국어 자체의 상품 가치는 현재 영어 상품 가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종학당의 운영의 가치를 좀더 심도 있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육과정으로는 한국어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연계하여 생활문화 교육내용과 인류공동체 형성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적 문화교육내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교원 자격증 이수를 위한 교과목 외에 국가 및 학습자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자격 부여 기준과 교육내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민간 차원의 한국의 대표부로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교사교육 내용과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국외 한국어 교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양교육을 통해 현지 정보수집가로서 혹은 민간 외교가로서 국가의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한국어 보급 전략 방편의 하나로서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 재검토 필요

최 현 선 | 국제교류재단 |

1.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해외 한국어 보급 전략 마련 우선, 이후 세밀한 학습 수요분석에 따른 보급(교육)체계/기구 검토 필요

세종학당이 벤치마킹했다고 판단되는 중국의 공자아카데미(Confucius Institutes)는 중국 漢辦(국가 중국어 국제조급 지도 소조 사무실/The Office of Chinese Language Council International)이 고안한 중국어 보급 전략 중의 하나이다.

(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

“중국 국가중국어국제보급지도소조는 열두개의 부·위원회로 구성됩니다; 국무원 사무국, 교육부, 재정부, 국무원 화교 사무실,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문화부,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총국(국제방송국), 신문출판본서, 국무원신문판공실, 국가언어 문자사업위원회. 조장은 천즈리 국무위원입니다. 지도 소조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중국어 보급사무실’로 약칭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자아카데미는 중국어 보급 전략 중 하나의 축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한국어를 보급하면서 포괄적, 장기적 전략 수립과정은 생략한 채, 설립 목적에 표방된 바와 같이 교육수요성격(대상)과 교육내용이 부분

적(specialists를 제외한 generalists)일 수 밖에 없는 “세종학당”의 역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benchmarking의 근원적 한계일 수 있다.

漢辦(Hanban)은 중국어를 보급하는 데 있어 세계 지형도를 놓고 각국 각급 여러 가지 교육기구의 중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기획, 수행하는 구조로 구성, 운영되며 교육체계 상 각급의 여러 층위 중 하나로 “공자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해외 외국인(현지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세분화 필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지속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의 환원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해외 각국 정규 교육 기관(specialists/대학 및 일부 고교)에 대한 각종 지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발표문이 다루고 있는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 대부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학습수요와 수요 성격, 경제적 효과, 교육 과정, 교원의 양성과 수급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 지원 사업의 수요 대상을 일반인(generalist)으로 확대하고자하는 과정에서(한국 정부가 한국어 교육에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사업의 대상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상정하고 있는 target audience를 제외한 불특정 일반 대중으로 본격 확대하는 부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별 또는 국가별 기존 한국어 학습 수요와 이 수요가 우리나라와의 관계발전과정에서 지니는 지속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일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나 일본에 비견하여 탄력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육(학습)수요가 3국의 경제발전속도와 경제성장이 이루어 낼 생활수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까지, 장기적, 상대적 지속력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정책적으로 한국 정부가 투자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오차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학당설립, 운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발표문에서 세종학당의 설립 운영은 비용효과분석 상 경제적으로 적자인 것이 명확한데 경제적 외부효과 창출을 위한 ‘초기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는 뭉뚱그려진 설명은 세종학당에 대한 정부 투자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별히 국외 외국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보급사업이 가장 폭넓은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언급에 대하여 외국인 대중(foreign audience)중 한국과의 연관도와 이 연관성의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큰 그룹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투자의 risk를 상대적으로 줄인)을 이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비용(사업예산) 외에 세종학당이 target audience로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불특정 해외 다중 또는 수요가 확실한 특정 그룹(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위해 한국어를 필수적으로 학습하려는 수요/학습자층은 넓으나 깊이는 얇은)에 대하여 명확한 segmentation과 함께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학습자군이 속한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당위성 검토도 필요하다.

3. 기존 한국어문화원과의 차별적 정체성(특화 내용)

기존에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어 온 한국 문화원과의 차별적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국어문화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내용이 우리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준비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 large, vertically oriented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solid black border. This area contains 20 horizontal dotted lines, evenly spaced,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A large, vertically oriented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solid black border. This area contains 20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다중의 시대, 언어 소통 기획

-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

발행인 이 상 규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08년 4월 21일

발행일 2008년 4월 23일

인쇄 크리홍보주식회사
